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제 작 / 청년필름
각본,감독 / 노 동 석

1. 오프닝.

어린 시절의 종대. 장난감 권총을 들고 전방을 노려보고 있다.
마치 영화 속 서부의 보안관 같다.

종대 v.o.

어린 시절 형은 항상 악당이였다.

종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며 쓰러지는 어린 기수.

cut to.

종대 v.o.

하지만, 커가면서 내가 항상 악당이 되었다.

교복을 입고 있는 고교시절의 종대.

식당에서 사용하는 작은 LPG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있다.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종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을 위협한다.

교실 안에서 고립된 섬처럼 아이들과 대치하고 있는 종대.

아이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는 기수.

cut to.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종대.

종대에게 달려드는 아이들을 향해 덤벼드는 기수.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지만, 몸을 날려 싸우는 기수.

얼마 못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얻어터지기 시작한다.

종대 v.o.

형은 태어날 때부터 내 편이였다.

부모도 다르고,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도 달랐지만.

신이 나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수에게 소개시키는 종대.

기수가 보기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여자친구.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기수. 종대를 조용히 따로 부른다.

심하게 말싸움하는 두 사람.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고 여자 때문인 것만 알 수 있다.

cut to.

종대 v.o.

세상은 온통 악당 천지였다.

학교도 마찬가지로였다.

늦은 밤 시간. 학교 담벼락 근처에 서있는 종대.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다.

꽤 무거운 물건이 들었는지 킁킁 대며 내려놓는 종대.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더니 학교 유리창을 향해 던진다.

공사장에서 쓰는 굵은 돌멩이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복도 창가 쪽 유리창들이 차례로 깨져나간다.

깨진 유리창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종대.

종대 v.o.

학교와 헤어지던 날, 형에게 궁금한 게 생겼다.

... 형은 왜 살까?

cut to.

종대 다리의 깁스를 실뿔으로 잘라내고 있는 기수.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이다.

종대: (기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왜 사니?

기수: ...

종대: 응? 왜 사는데?

기수: (시답잖다는 듯) 혹시라도 네가 출세할까봐.

할 말을 잃은 종대.

cut to.

종대 v.o.

형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 취직을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는 종대.

옆에서 종대를 도와주는 기수.

종대 v.o.

취직하던 날 형에게 또 물었다. 형이 아는 가장 먼 미래는 언제냐고.

형은 짧게 대답했다.

기수: (걸레로 자동차에 물기를 걷어내다 정면을 보고) ... 내일.

오프닝 음악이 흐르며 서울 도시의 밤거리 풍경과 함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타이틀이 뜬다.

2. 황제 당구장.

한산한 당구장. 기수와 종대가 당구를 치고 있고,
카운터에는 종대 친구, 범상이 앉아있다.
잔뜩 폼을 잡고 친 종대의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튀어나간다.
다른 당구대 바닥에 떨어진 당구공.
잠깐 동안의 정적 속에 주위 눈치를 살피는 종대.

종대: 에이, 쪽팔리게.., (범상을 보며) 야, 불 꺼!

멍한 표정으로 어슬렁어슬렁 자리에서 일어나는 범상.

종대: (악을 쓰며) 뭐해, 빨리 안 끄고!

당구장 실내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범상.
순식간에 어둠에 잠긴 당구장.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댄다.

기수: 뭐하는데?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진 당구공을 줍기 위해 당구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종대.
당구공을 주워 나온다.

종대: 불 꺼!

순식간에 환해지는 실내.
공을 주워 나오는 종대 앞에 깔끔한 양복차림의 김사장이 서있다.

종대: (살짝 놀라며) 어! 오...오셨어요.
김사장: 공을 칠 때 가는 방향을 먼저 상상해서 그런 거야,
(당구공을 당구대 위에 다시금 놓아주며) 다시 해봐.

김사장을 보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기수.

기수: 뭐해, 빨리 치지 않고!
김사장: (자상하게) 다시 해 봐, 공을 끝까지 보고.

약간 멍청멍청 거리며 자세를 취하는 종대.

조준을 하고 힘껏 당구 채를 휘두르자, 쿠션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김사장: (박수를 쳐주며) 나이스!

김사장의 박수에 우쭐해져 쑥스럽게 웃는 종대.
무언가 못마땅한지 당구 채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기수.
기수를 뒤쫓아 나가는 종대.

3. 당구장 입구.

기수를 붙잡아 세우는 종대.

종대: 알았어, 알았어, 이번 거 없던 걸로 할게.
기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종대에게 주며) 됐어.
종대: 왜 그래?
기수: 뭐가?
종대: ... (기수가 준 돈을 세보며) 천 원 더 줘. 내가 열두 개 뽑았잖아.

종대를 빤히 쳐다보며 지갑에서 천 원 짜리 한 장을 더 꺼내 종대에게 건네준다.

기수: 됐냐?
종대: 에이, 농담이야, (다시금 기수 손에 돈을 쥐어주며) 왜 그래? 형!
기수: 저 사람 왜 온 거야?
종대: 누구? 김사장?
기수: 나 저 사람 싫어.
종대: 나도 저 아저씨 싫어해.
기수: ...
종대: 정말이라니까!
기수: ...
종대: 됐지?
기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종대: (기수 손에 쥐어준 돈을 다시 뺏으며) 그럼, 이건 내거다?

종대의 행동이 마냥 귀여운 기수. 활짝 웃는다.

4. 김사장 사무실 앞.

<상인연합회>라는 커다란 현판이 붙어있는 사무실 앞을 두리번거리는 종대.
그때, 문을 열고 구역예배를 마친 김사장과 목사, 신도들이 나온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종대.

김사장: 목사님, 혹시 대하짬 드셔 보셨나요?

목 사: 대하짬이요?

김사장: 전에 대장금에도 나오고 한 음식인데, 제가 맛있게 하는 데를 알아서요.
오늘 한번 모실까 하고요.

여신도1: (중간에 끼어들며) 그거 남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여신도2: 우리 신랑도 불러야겠다.

목 사: (기분 좋게 웃으며) 김장로님 때문에 요즘 집사람한테 칭찬 많이 들어요.

김사장: ??

목 사: 구역 예배만 갔다 오면 힘이 넘쳐가지고 온다고...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는 김사장과 신도들.

김사장: 아이고, 별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면 오히려 제가 힘이 나요.
마음도 맑아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뭐.

신도일동: (김사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합창하듯) 아멘! 아멘!

그때, 종대를 발견한 김사장.

김사장: (환하게 미소 지어 보이며) 어, 종대구나!

반듯하게 고개 숙여 김사장에게 인사하는 종대.

5. 전통 음식점.

전통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음식점.

대하짬을 앞에 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목사와 신도들.

다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열심히 통성기도를 한다.

김사장, 살짝 실눈을 뜨더니 맛있는 반찬을 자기 옆에 앉아있는 종대 쪽에 뇌준다.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는 종대.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며 <싹>하는 동작을 취하는 김사장.

6. 김사장 차안.

가죽시트가 돋보이는 김사장의 에쿠우스 승용차 안.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김사장과 종대.

검은 라이방을 끼고 있는 김사장.

차창에 짙은 선팅을 해서 외부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차안.

차안에는 아쟁연주를 하는 국악이 흐르고 있다.

한없이 구슬픈 음악소리.

김사장: 간단한 일이야, 간단해, 간단한 거 아니면 너한테 안 시켜.

할 수 있지?

종대: (고개를 끄덕인다.)

종대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검은 라이방을 끼워주는 김사장.

종대, 얼떨결에 검은 라이방을 쓴다.

김사장: 사람한테 눈이 제일 중요해.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어때, 달라 보여?

검은 라이방을 쓴 채 차창 밖 풍경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종대.

7. 드럼 교습소.

지하 드럼 교습소에 앉아있는 기수와 학생1,2의 모습이 보인다.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1,2. 힙합 스타일의 옷차림이 제법 요란하다.

아직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벙벙해 보이기도 한 얼굴들이다.

메트로놈(음악의 템포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기계)에 맞춰

드럼패드를 스틱으로 치는 학생1,2.

메트로놈에서 흘러나오는 박자와 따로 논다.

기수: 그만!

동작을 멈추는 학생1,2.

대책이 안서는 기수.

학생2: 얼마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기수: ??

학생2: 음반 내는 거요.

기수: (피식 웃으며) 밴드를 너희 둘이서 한다는 거야?

학생1: 한 명 더 있는데, 병원에 예약을 해놨어요.

기수: 무슨 병원?

학생2: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교정기 뺐다고요. 게가 보컬이거든요.

기수: 간 김에 얼굴도 고치라고 그러지?

학생2: (사뭇 진지하게) 기획사 붙으면 그때 가서 한테요.

학생1: 밴드 이름도 있는데...

기수: (어이없어하며) 뭔데?

학생2: 재희와 혼수상태요.

기수: 재희가 누군데?

학생1: 오늘 못 온 애요.

기수: 그럼 너희가 혼수상태야?

학생1,2: ...

기수: 드림은 누가 칠 건데?

학생1,2: (동시에 상대방을 가리킨다.)

서로를 마주보고 당황해 하는 학생 1,2.

학생2: (학생1에게) 뭐야, 네가 한다며?

학생1: 내가 언제?

학생2: 손목 굽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학생1: (목소리가 한결 커져서) 오면서 바꾸기로 했잖아!

학생2: (덩달아 커져서) 졸라 짜증난다, 너! 그거야 장난으로 말한 거구.

학생1: 뭐? 장난? 내가 한번 장난의 끝을 보여줄까?

학생2: 보여줘 봐? 보여줘 봐!

기수: 그만, 그만! (곱상하게 생긴 학생1을 보며) 너 누나 있어?

학생1: 네.

학생2: 저도 누나 있는데요.

기수: (학생2를 보며) 넌 됐어. (다시 학생1을 보며) 누나 몇 살이나?

학생2: 열아홉이요.

기수: 아니, 넌 됐다고. (학생1을 보며) 누나 몇 살이야?

학생1: 열다섯이요. 자랑 쌍둥이예요.

학생2: (목소리 높여) 저도 있다고요!

기수: (덩달아 목소리 높여) 알았다고요!

일어나 봐, 둘 다!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는 학생1,2.

기수: 어서!

그제야 일어나는 학생1,2.

기 수: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저 문으로 나가면 오른 편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 오 층일 거야, 아마. 그리로 가봐, (학생들의 힙합차림을 훑어보며) 니들 반길 거다.

학생2: 뭐하는 덴데요?

기 수: 가보면 알아.

학생1: 안돼요, 저희 밴드 해야 해요.

학생2: (덩달아) 밴드하게 해주세요.

기 수: 어서 가라니까!

학생1: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부님!

학생2: (덩달아 무릎을 꿇으며 더 큰소리로) 사부님!

기 수: (기막혀 하며) 여기 쿡후 도장 아니다.

(스틱 채를 흔들어 보이며) 이걸로 맞으면 안 아프겠지?

살짝 겁먹은 얼굴의 학생1,2.

학생1: 그림, 드럼 한번만 만지고 갈게요.

학생2: (덩달아) 저도요.

할 수 없다는 표정의 기수.

cut to.

드럼세트를 신기한 듯 손으로 만져보는 학생1,2.

어느새 아이들이 귀여워진 기수.

기수: (드럼 의자를 가리키며) 거기 앉어도 돼.

기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로 앉으려고 난리를 치는 학생1,2.

두 사람을 뜯어 말리는 기수.

cut to.

드럼 의자에 엉덩이를 반쯤씩 걸치고 함께 앉아있는 학생1,2.

하나씩 나눠 준 드럼 스틱으로 앞에 놓여있는 심벌만 소심하게 툭툭 두드린다.

하던 동작을 멈추고 기수에게 스틱을 내미는 학생1.

덩달아 자신이 들고 있던 스틱도 내미는 학생2.

cut to.

드럼에 앉아 심벌 스탠드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는 기수.

학생1,2를 보고 살짝 미소 짓더니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실내를 휘감기 시작하는 경쾌한 리듬에 절로 입이 벌어지는 학생1,2.

웃음기 걸어진 기수의 얼굴 표정은 리듬을 타고 흐른다.

8. 구청 사무실.

위생과 풋말이 사무실 천장에 걸려있는 구청 사무실.

바짝 마르고 왜소한 체형의 임과장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임과장: 그래요...네...에에, 전화 끊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임과장. 책상 서랍 속에서 치약과 칫솔을 꺼낸다.

칫솔에 치약을 짜서 묻히고는 책상 한편에 놓인 머그컵을 챙겨 일어난다.

임과장: (맞은 편 책상의 부하직원을 보며) 이춘구씨, 나 오늘 저녁 프리야.

부하직원: ??

임과장: 저녁때 진하게 바둑한판 어때?

부하직원: (순간적으로 입 안 가득 웃음이 퍼지며) 아, 좋죠!

9. 클린 룸살롱 2번 룸.

룸 테이블에 누운 채, 취기 오른 임과장과 부하직원을 보고 생긋 웃는 아가씨1.
테이블에 누워있는 아가씨의 몸 위엔 온갖 안주들로 채워져 있다.

임과장: (잔뜩 취기에 찬 목소리로) 오호, 춘구야, 이 바둑판 진짜 맘에 든다.

부하직원: (입을 벌린 채 해해 거리며) 과장님부터 선수 두시죠.

임과장과 부하직원 옆에 있던 아가씨들 앙탈 부리며 소리친다.

아가씨2: 오빠들 눈 빠지겠다. 우리 그럼 그만 나가요?

부하직원: (아가씨2를 붙잡으며) 왜 그러세요, 언니! 바둑판을 질투하고 그래.

그때, 울리는 룸서비스 전화.

아가씨3: 여보세요,..네,..잠깐만요. (부하직원에게 수화기를 넘기며) 짧은 오빠!

그사이 아가씨1 몸 위의 안주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임과장

부하직원: 여보세요,..예? 잠시만요, (아가씨3에게 주먹을 내보이며) 나 아니잖아,
(정신을 놓은 임과장을 보며 큰소리로) 과장님 (더 큰소리로) 과장님!

임과장: (소리에 놀라) 뭐? 나?

수화기를 향해 어기적거리며 걸어오는 임과장.

임과장: (이미 혀가 잔뜩 풀려서) 여보세요,..몇 호? ... 왜 하필 죽을 4야?
좋은 숫자 다 두고서, 알았어.

수화기를 내려놓는 임과장.

10. 클린 룸살롱 4번 룸.

텅 비어있는 룸에 들어온 종대.

어두운 실내 안이지만, 김사장이 준 검은 라이방을 끼고 있다.

잠바 속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룸 귀퉁이에 놓인 쓰레기통에 넣는다.

룸 정면에 걸려있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는 종대.

잠시 뒤 룸에 들어오는 임과장.
익숙한 숨씨로 쓰레기통을 찾더니 돈 봉투를 꺼내 슬쩍 액수를 확인한다.
돈다발을 닦치는 대로 지갑과 양복 주머니, 속옷, 양말 속에 나눠넣는 임과장.
커튼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종대.
핸드폰을 꺼내 사진촬영을 한다.
라이터를 꺼내 돈 봉투에 불을 붙이는 임과장.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버린 돈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종대.

11. 클린 룸살롱 입구.

룸살롱 실장과 웨이터의 배웅을 받는 임과장과 부하직원.
모범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택시에 오르려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지갑에서 만 원 권 몇 장을 꺼내
웨이터에게 찔러주는 임과장.

웨이터: (돈을 받아들며 힘찬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임과장: 근데, 너 이름이 뭐냐?
웨이터: 타잔입니다.
임과장: 타잔! 이름 좋네. (손으로 웨이터 옆구리를 쿡 찌르며) 치타들 잘 관리하구.

비틀거리며 택시에 오르는 임과장과 부하직원.
깁듯이 배웅하는 실장과 웨이터

부하직원: 과장님 오늘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렇게 큰돈을 주고.
임과장: 애들 누구?... 치타들?
부하직원: 아니요, (고갯짓으로 웨이터를 가리키며) 재 말 이에요.
임과장: 주은 돈은 빨리 써야 돼. 쥐고 있으면 다쳐. 알아?
부하직원: ...

12. 황제 당구장.

검은 라이방을 낀 채 카운터 앞 당구대에서 혼자 쿠션 볼을 연습하고 있는 종대.
카운터에 앉아 삼각 김밥을 까먹고 있는 범상.

범상: (종대의 라이방을 가리키며) 그거 좀 벗으면 안 될까?

못들은 척 당구에 열중하는 종대.

범상: 오늘도 지난번처럼 회 사줬으면 좋겠다.
종대: 김밥이나 빨리 쳐드셔.

범상: 근데, 왜 안 오냐, 올 때가 됐는데.
종대: (당구공을 조준하며) 자꾸 떠들래?
범상: 배고프니까 그러지.
종대: 너, 기수 형한테 얘기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범상: 뭘?
종대: 김사장 아저씨 심부름 한 거 말이야.
범상: 왜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해봐?
종대: 또, 세 가지! 넌 세 가지 이유 밖에 모르지?
범상: 그럼, 네 가지 대봐!

종대가 친 공이 백싸리 나고 만다. 범상을 흘겨보는 종대.
그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사장과 일행들.
모두들 작은 손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다.

종대: (김사장을 보자 서둘러 라이방을 벗으며) 오셨어요?
김사장: (미소 지으며 종대에게) 괜찮아, 쓰고 있어, 나이스해서 좋구만.
밥들은 먹었냐? (범상을 보며) 재는 밥 안 줬냐? 표정이 왜 저래!

카운터에 앉아있다 입을 썩 내미는 범상.

김사장: (범상을 보며) 아버지 계시냐?
범상: (내실 쪽을 가리키며) 안에 계세요.

다른 일행들을 당구장 내실로 들여보내고, 종대를 따로 부르는 김사장.
당구장 귀퉁이에 마련된 휴게실에 마주보고 앉는 김사장과 종대.

김사장: 그거 쓰고 있으니까, 맥아더 같다. 맥아더가 누군지 알아?
종대: ...
김사장: 있어, 아주 훌륭한 장군.
종대: (마치 새색시처럼 축스러워한다.)
김사장: 교회는 언제 나올 거야?
종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못한다.)
김사장: 믿음은 좋은 거야, 난 너 믿는데, 넌 안 그런가보다?
종대: (정색을 해서 손을 내저으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김사장: (끼끌 웃으며) 됐어, 오늘 수고했어. 요 아래 노래방에 얘기 해 줬으니까,
애들이랑 가서 재밌게 놀아.
종대: 감사합니다.
김사장: (일어서서 가려다 덩달아 같이 일어선 종대를 보며) 키가 더 큰 거 같다.
아직도 크는 거야?
종대: (축스러워하며 제대로 말을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다.)
김사장: (살짝 웃어 보이며) 다 크면 아저씨랑 일하자는 약속 안 잊었지?

종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13. 당구장 내실.

음료수와 냅킨 등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내실로 향하는 범상.

그 뒤를 종대가 살살 뒤따른다.

범상이 내실 문을 열자, 담배연기가 자욱한 실내공간이 보인다.

앉은뱅이 쿠션에 기대 채, 마작을 하고 있는 김사장과 일행들.

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김사장의 모습이 종대 눈에 들어온다.

빠른 손놀림으로 진행되는 마작판.

신기하게 쳐다보는 종대.

테이블에 음료수를 내려놓으며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드는 범상.

자신의 판돈에서 십만 원 권 수표 한 장을 빼서 범상에게 주는 김사장.

입이 찢어지게 웃는 범상.

덩달아 미소 지으며 김사장에게 인사를 하는 종대.

14. 시내 도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기수.

뒷좌석에는 술 취한 손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때 울리는 기수 휴대폰.

기수: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왜?... (놀라며) 뭐?...

다친 데는?...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뒷좌석의 잠든 손님을 보고는 차를 돌리는 기수.

15. 기수 동네 거리.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기수.

뒷좌석의 손님을 깨운다.

손님: (겨우 눈을 뜨며) 벌써 다 왔나?

기수: 손님, 죄송한데요, 제가 급해서요.

손님을 깨우고는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는 기수.

손님: (주머니를 뒤척이며) 아저씨, 돈 갖고 가야지...근데, 여기가 어디냐?

16. 노래방.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있는 노래방 주인에게 달려드는 기수.

기수: 종대 어디 있어요?

주인: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투로) 누구?

복도를 따라 객실을 열어젖히기 시작하는 기수.

놀라서 뒤따라오는 주인.

주인: (큰소리로 악을 쓰며) 이 새끼들, 또 사고 칠래?

기수가 제일 큰 객실을 열어젖히자, 술에 취해 악을 쓰며 노래 부르며 노는 종대와 범상이 보인다. 그 옆에는 어린 날나리 소녀1,2가 있다,

종대: (기수를 보고는 범상을 가리키며) 형! 이 새끼 노래 진짜 못해.
 마이크 좀 뺏어봐!

범상은 종대의 라이방을 쓴 채 자기 기분에 취해 노래 삼매경에 빠져있다.
자신을 속인 것이 기가 막힌 기수.

종대: (범상의 마이크를 뺏아서 기수에게 내밀며) 형! 같이 놀자.

마이크가 없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음정박자 다 틀리는 노래를 부르는 범상.

범상: 야, 고자 새끼야, 마이크 내놔!

소녀1: (종대를 보며) 오빠, 고자야?

소녀2: (소녀1에게) 고자가 뭘데?

비틀거리며 범상에게 달려드는 종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실내.

기수,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닫고 나간다.

17. 기수 반 지하 원룸 앞.

험한 모습으로 원룸 빌라 복도에 들어서는 기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복도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반 지하 계단을 내려오다 깜짝 놀라는 기수.

계단 끝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다.

기수 형 영수와 조카 요한이다.

기수: 뭐야, 주인 아줌마인줄 알았잖아!

고개를 들어 힘없이 기수를 쳐다보는 영수와 요한.

18. 기수 반 지하 원룸.

동그런 앉은뱅이밥상에 둘러 앉아있는 기수, 영수와 요한.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자, 무의식적으로 드림 치는 동작이 나오는 기수.

영수: (걱정스런 눈빛으로) 요즘도 치냐?

기수: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영수: 돈 되는 일에 그렇게 미치면 좋잖아.

기수: 돈에 미친 형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영수: ... 아까 주인집 아줌마 얘기는 뭐야?

기수: 요즘 생각기야.

영수: 왜?

기수: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요한: 삼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기수: (자신의 컵라면을 열어보더니) 먹어도 되겠는데.

기수, 요한의 컵라면 뚜껑을 뜯어내더니 뚜껑을 고깔 모양으로 접는다.

기수: (고깔 모양 뚜껑에 라면을 담아서 요한에게 내밀며) 이런 식으로 식혀 먹어.

신기한 듯 고깔모양 뚜껑을 받아 이리저리 돌려보는 요한.

자신의 컵라면을 우걱우걱 혼자 잘도 먹는 영수. 은근히 화가 나는 기수.

기수: 지금 뭐가 잘못 된 건지는 알아?

영수: ... 알아.

기수: 뭔데?

영수: (화제를 돌리며) 요즘 경기는 어떠냐?

기수: 경기가 어떠면? 왜, 형이 경제라도 살리려고?

영수: (정색을 하며) 필요하면 해야지, 나도 세금 내는 국민인데.

기수: (기가 차서) 그 전에 형수부터 찾으세요!

영수: 너 네 형수 너무 미워하지 마.

기수: ...

영수: ...

기수, 갑자기 영수의 코에 손을 가져간다. 기수의 손길을 피하려 하는 영수.

기수: 가만 있어봐, (영수의 코털을 뽑아주며) 코털이 삐죽 나와 보이면
사람이 느슨해 보여. 이러니까 형수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영수: ...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기수: 너무 걱정하지 마, 발이 있으면 돌아오겠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수.

영수가 몇 걸음 떼자마자, 젓가락을 내던지고 영수에게 달려붙는 요한.

요한: 그냥 가지 마...(영수를 뺨히 올려다보며) 말하고 가.

영수: 안 가, 아빠 오줌 싸러 가는 거야.

좀처럼 영수를 놓아주지 않는 요한.

기수, 얼굴이 굳는다.

19. 노래방 실내.

여기저기 빈 캔 맥주와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예약해 놓은 곡들이 저 홀로 연주되는 실내에는

술에 취해 소파에 몸을 묻고 잠들어 있는 범상이 보인다.

같이 놀던 소녀1,2도 그 옆에 나란히 뺨어있다.

그 옆에 종대 역시 술에 취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앉아있다.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대.

그때, 종대 손을 붙잡는 소녀1.

소녀1: 오빠, 어디가? 오늘밤 나랑 있자?

소녀1 손을 뿌리치는 종대.

소녀1: 나 싫어? 어?

앞에 놓여있는 탁자를 치우고, 방 밖으로 나가는 종대.

소녀1: 야, 너 진짜 고자야?

소녀1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는 종대.

살짝 겁먹은 표정의 소녀1.

노래방 복도로 걸어 나가는 종대.

20. 노래방 복도.

카운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노래방 주인에게 걸어가는 종대.

주인: (종대를 보자마자) 여관비는 따로 내!

종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하나 꺼내 마시며) 우리 형 어디 있어?

주인: 내가 어떻게 알아, 돈이나 더 내!

노래나 하고 놀다 가랬더니 퍼질러 자빠져 자고...

종대: 우리 형 어디 있냐고!

주인: (종대의 머리를 툭 치며) 이게 어따 대고 고품이야, 고품이!

종대: ...

주인: 가서 네 똥마니나 깨워. 김사장 봐서 오냐오냐 했더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따 대고... 빨리 가서 깨워!

종대: ...

뒤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는 종대.

갑자기 멈춰서더니 소리를 지르며, 발로 노래방 내실 문을 마구 발길질 한다.

주인: (종대에게 달려가며)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종대에게 달려들어 종대 목덜미를 낚아채는 주인.

저항하는 종대. 종대를 끌고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는 주인.

21. 기수 원룸.

좁은 원룸에 다닥다닥 붙어서 잠들어 있는 기수와 영수.

어두운 달빛 아래 영수 옆에 누워있던 요한이 몸을 일으킨 채 앉아있다.

잠자다 영수의 코고는 소리에 잠이 깬 기수.

기수: (요한을 보고 놀라서) 야마, 안자고 뭐해?

반응이 없는 요한. 요한에게 다가가는 기수.

기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요한.

기수, 살포시 요한을 자리에 눕혀준다.

기수가 하는 대로 암전하게 다시금 자리에 눕는 요한.

기수, 요한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불과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준다.

그제야 다시금 눈을 감고 잠드는 요한.

요한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기수.

그때, 요란한 진동소리를 내며 휴대폰이 울린다.

요한이 깰까봐 허겁지겁 휴대폰을 받는 기수.

기수: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해서) 왜? 또!

...너 죽는다, 진짜! 계속 장난칠래?

22. 노래방 근처 거리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종대. 흠뻑 두들겨 맞은 상태다.

종대: 형...진짜거든...와주라...한번만...살이 너무 아파....
아니, 뼈 말고 살이...아프다고.....그래,....올 거지?...
형, 나 좋아하지?...그지...형.

23. 기수 원룸.

갑자가 통화가 푼 끊긴다.

이상한 마음에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기수.

24. 노래방 근처 거리.

거리를 배회하는 기수.

종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수: (또 속았다는 생각에) 아이, 이 자식이!

그때, 골목 귀퉁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이야?’ 하는 종대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리 난 쪽으로 달려가는 기수. 종대가 만신창이가 되서 바닥에 배를 깔고 뺨어 있다.
검은 라이방을 여전히 끼고 있는 종대.

기수: (놀라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종대: (기수가 다가오자) 건들지 마, 형!... 그냥 있어. (개구리처럼 뺨은 채로)
이 자세가 편해, 건들지 마.

기수: (어쩔 줄 몰라서) 괜찮은 거야?

종대: 아직까진... 담배 하나만 줘.

종대에게 담배를 물려주는 기수.

종대: 담배 맛이 왜 이래?

기수: 어떤 자식들이야?

종대: 형도 내가 고자라고 생각해?

기수: ...

종대: 나 아니거든, 범상이 새끼 쥐빨도 모르면서...

나 좀 뒤집어 줘, 형!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종대를 뒤집어주는 기수.

종대가 쓰고 있는 라이방을 벗겨내려 하자, 제지하는 종대.
억지로 라이방을 벗겨내는 기수.
부풀어 오른 종대 얼굴이 드러난다.

종대: 나 괜찮아 보여?

기수: 그 입만 다물면!

종대: 화 내지마, 형. 나 맞은 거 아니거든.

나 진짜 맞은 거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던 거야.

기수: (종대 손을 잡으며) 얼굴이 이게 뭐야, 맨날 주먹 자랑하더니.

종대: (잔뜩 콧소리 넣어서 애교스럽게) 형, 나 사랑해주라, 미워하지 마. 응?

기수: (약간 화가 풀려) 강한 사람이 사랑 받는 거야,

(안쓰러운 마음 가득) 바보처럼 이게 뭐야? 얼어터지고나 다니고...

종대: ... 형, 그 누나들 보고 싶다.

기수: ??

종대: 돌산 약수터.

기수: (얼굴에 웃음이 번지며) 으이그, 인간아!

종대: (키득대며) 난 여자들 몸이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그래서 머리 좋은 놈들이 여자도 잘 먹나 봐?

기수: (피식 웃으며)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종대: 그 누나들 팬티 진짜 귀엽지 않았어? 막 팬티에 스누피 그려져 있고,

기수: 브래지어랑 세트로!

종대: 그래, 세트로!

기수: 역시 여자는 위대해!

낄낄대며 웃는 두 사람.

종대: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형, 봐봐, 섰어! 거 봐, 말짱하지?

확실히 그 누나들이 직방이라니까.

기수: (금세 표정이 굳는다.)

종대: (기수 손을 자기 사타구니에 이끌며) 만져봐.

머뭇거리는 기수.

종대: (진지하게) 만져봐, 괜찮다니까.

기수: ... 미안해.

종대: (정색을 하며) 아니야, 형. 구슬 하나 없는 게 대순가!

그냥 한번만 만져 줘. 응?

기수, 종대의 손을 대신 잡는다.

기수: ... 그때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종대: 알아.
기수: ...
종대: 기분 좋았어, 맞을 때는. (낄낄대며) 지 구슬 터진지도 모르고.
기수: ...
종대: 형, 나 괜찮지? 말짱하지?... 나, 군대 가고 싶어.
기수: 너, 갈 수 있어.
종대: 형, 총이 필요해.
기수: 여기 미국 아니다.
종대: 그래도 필요해, 총이 있어야 안전해. 총 갖고 싶어.
기수: 집에 잔뜩 하잖아?
종대: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이야.
기수: (농담 투로) 카드할부 되면 고려해볼게.
종대: 맨날 세차나 하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기수: ...

25. 동네 약국.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허름한 건물에 들어서 있는 약국.
약국 의자에 앉아 약을 바르는 기수와 종대.
얼굴이 엉망이 된 종대.
가위와 반창고를 가지고 나와 기수에게 던져주는 이약사.
자다 일어났는지 희끗한 머리는 푸석해 보이고, 영성한 잠옷차림이다.

약사: 자는 데 깨우고 지랄들이야, 니들한텐 약보다는 된장이 딱인데...
종대: 환자한테 왜 그러세요, 또!
약사: 니들 아니었으면 나, 벌써 병원 차렸어.
종대: 약사가 무슨 병원을 차려요?
약사: 그래도 입은 멀쩡하네. (기수를 보며) 재, 입은 안 꿰매도 되겠다.
종대: 이래서 건강해야 한다니까!
약사: 저것도 개성이라고 달고 다니니, 참 내...,
 니들은 지겹지도 않냐? 매일 붙어서.
종대: 아저씨 보는 것보단 덜 지겨워요.
약사: 으이그, 성질머리하고는. (기수를 보며) 넌 왜 자꾸 재랑 붙어 다니는 데?
종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기수: 애, 입도 꿰매야겠는데요.
종대: ...
약사: 세월 금방이다, 조심조심 다녀!
종대: (약사 말투를 흉내 내며) 조.심.조.심.다.녀.

26.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세차하고 있는 종대.

얼굴 한쪽엔 반창고가 붙어 있지만, 나름대로 세련된 작업복 차림새다.

한눈에 보기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심플한 원피스를 입은

미시주부가 자동차를 향해 걸어온다.

종대: (반갑게 맞이하며) 일찍 나오셨네요?

내부 좀 청소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시: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차 내부에서 재떨이를 꺼내 종대에게 내밀며)

미안한데, 이것만 비워 줄래?

종대: (황급히 재떨이를 받아들며) 미안하긴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세차수레에 걸어놓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뱃재들을 털어놓는 종대.

재떨이를 물로 헹군 뒤, 걸레로 잘 닦아서 차에 장착시킨다.

미시: 땡큐!

종대: 내일 시간 되시면 경비실에 키 맡겨주세요.

내부 서비스 확실하게 해 드릴 테니까.

미시: (차에 올라타며 싱긋 웃으며) 그렇게, 수고!

종대: 다녀오십시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외제차. 그 뒤꽂무니에 대고 깡뚝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종대.

어느새 종대 등 뒤에 서있는 기수와 요한.

기수: (근엄한 목소리를 흉내 내서) 눈 빠진다, 종대야!

종대: 어! 형, 언제 왔어?

기수: 맨날 말하던 여자가 저 여자야?

종대: 죽이지? 그래서, 여자는 발목이라니까. 아까 봤어? 하이힐!

발목만 봐도 치마 속이 다 보인다니까.

기수: (세차수레에서 마른 걸레를 꺼내 종대얼굴에 던지며) 침이나 닦아!

종대: 어디 여자 발목만 파는 데 없을까?

기수: 자꾸 변태 같은 소리 할래?

종대: (세차수레를 기수 쪽으로 들이밀며) 나 변태야, 몰랐어?

기수: (요한을 의식하며) 애 듣는다.

종대: (요한을 가리키며) 재가 게야?

기수: 그래.

요한: 삼촌, 변태가 뭐야?

종대: (요한을 보며 진지하게) 너무 잘 생겨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기수, 쪼다는 표정이다.

27. 아파트 지하 계단.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세차수레를 함께 들고 내려가는 기수와 종대.
뒤따라 내려가는 요한.
장난치며 내려가는 모습이 정겹다.

28. 아파트 지하.

보일러 파이프가 천장을 미로처럼 엮고 있는 아파트 지하.
어두침침한 실내 한편에 백열등이 켜져 있고,
세차재료와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 놓은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낮은 탁자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기수와 종대.
종대, 반쯤 탈진한 상태로 담배를 피워 물고 있다.
은은하게 실내공기를 채워나가는 담배연기.

요한: (종대를 가리키며) 삼촌, 여기가 이 형 집이야?

종대: 죽을래?

종대의 욕박질에 움찔하는 요한.

기수: 왜 그래, 너 네 집보다 더 넓구만.

종대: 형! 힘들어 죽겠는데!

기수: 어디가 제일 힘든데?

종대: (손가락으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심껏 웃더니) 당연히 여기지.

내가 아는 여자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누구처럼 다리가 긴 것도 아니고, 허리만 길지,

그렇다고 얼굴이 되나?

기수: 너 다리 길어!

종대: 다리가 긴 게 아니라, 허리가 긴 거라니까!

기수: 그래도 얼굴은 쓸 만하잖아.

종대: 나 같은 놈은 진짜 변태가 될 수밖에 없어.

풀이 죽은 기수의 얼굴.

종대: 에이, 형! 농담이야. 나 멀쩡해, 정상이야.

기수: 멀쩡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냐?

종대: ...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실 끝 쪽으로 걸어가는 종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킁킁대며 끌고 온다. 자동차 타이어다.

기수: 뭐해?

종대: (깡깡 대며 타이어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기다려 봐.

세차 도구들을 놓는 사물함 한 쪽 서랍을 열어 낡은 드럼 스틱을 꺼내는 종대.

요한: 삼촌, 저거 뭐야?

기수: 드럼 칠 때 쓰는 거.

요한: 드럼이 어디 있어?

종대: (타이어를 툭툭 치며) 여기 있잖아.

기수에게 드럼 스틱을 건네는 종대.

기수: 이걸 어디서 냈어?

종대: 형이 옛날에 나 인간 만든다고 휘두르던 거 아니야.

기수: 내가?

종대: 그래, 기억 안 나? 내가 원정 나가서 뺑 뜯다가 형한테 걸려서!

기수: 내가 그때 이걸로 때렸니?

종대: 응!

기수: 너를?

종대: (고개를 가로 짓는다.) 형이 형 허벅지를 막 때렸잖아. 바닥에 무릎 꿇고서.

기수: ...

종대: 뭐해, 두드려봐.

종대를 보고 싱긋 웃어 보이는 기수.

‘툭툭’ 스틱으로 타이어를 두드리는 기수. 어느새 빠른 비트의 리듬으로 변해간다.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는 종대와 요한.

제법 리듬을 타는 두 사람.

타이어를 두드리는 소리가 어느 순간 드럼소리로 변한다.

드럼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종대와 요한.

29. 기수 원룸 화장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하는 요한.

그 옆에 서서 드라이기로 요한의 젖은 머리를 말려주는 기수.

요한이 벽에 걸린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사이 요한이 씻던 대야에 손을 씻는 기수.

기수 뒤에 오더니 기수 등에 업히는 요한.

기수: 어쭈!!

요한: 히히!

기수: 삼촌 볼에 얼굴 가까이 대봐. 그러면 재미난 거 보여줄게.

기수 등에 업힌 채로 기수 볼에 얼굴을 가져다대는 요한.

기수: (요한 볼에 자신의 볼을 들이밀며) 더, 더 꼭 붙여야지.

기수 볼과 요한 볼이 어깨를 사이에 두고 꼭 붙는다.

요한을 업은 채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기수.

요한, 신난다.

기수: 꼭 붙들어, 떨어져 (기수에게 한결 꼭 달라붙는 요한)

화장실 안이 요한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동작을 멈추고 벽에 걸린 거울을 함께 바라보는 기수와 요한.

기수: 네 얼굴 보면 무슨 생각이 나?

요한: 몰라.

기수: 잘 생겼어?

요한: 아니, 못 생겼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기수: ...

요한: 삼촌이랑 내 얼굴이랑 바꾸는 거야.

기수: ...

요한: 히히, 그럼 웃기겠지?

기수: (요한이 앞머리를 다듬어주며) 이제 마음에 들어?

요한: 몰라.

기수: 아는 건 뭔데?

요한: 몰라.

기수, 졌다는 표정이다.

cut to.

텔레비전 화면을 불빛 삼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종대와 기수.
제법 취해 보이는 두 사람. 방 안 한쪽 편에는 요한이 자고 있다.

종대: 몰디브는 언제 가?

기수: (피식 웃는다.)

종대: 거기 해변에서 드림 쳐야지.

기수: 몰디브 가는 비행기가 자주 없어서...

종대: 가면 나도 데려가는 거지?

기수: (잠시 동안 종대를 바라본다.)

종대: 왜? 안 데려 갈 거면, 빨리 여자나 소개 시켜줘!

기수: 부탁 들어주면.

종대: (자신만만하게) 뭔데, 다 들어줄게. 말만 해.

기수: 나 일 나가는 저녁 때 요한이 좀 봐줘라.

종대: (태도가 돌변해 정색을 하며) 안 돼, 싫어, 애들 딱 질색이야!

기수: 다 들어 준다며?

종대: ...

기수: 그냥 너 시간될 때 며칠만 봐줘.

종대: 아이, 나 바쁜데,...

기수: 바쁘긴 네가 뭐가 바빠... (지나가는 말투로) 감사장 따라다니는 거 아니지?
그 길로 가봐야 너 답 없다.

종대: (짜증을 내며) 또 그 소리! 알았어. 그만 해.

(기수 뒤편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쟤 또 왜 저래?

얌마, 자다 말고 뭐해?

종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기수.

요한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있다.

30. 동네 약국.

약국의자 귀퉁이에 앉아서 손님들이 버리고 간 약병을 담은 상자를 뒤지는 요한.

그 앞에는 기수가 서있다.

약을 들고 조제실에서 나오는 이약사.

약사: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몸이 허해져서 그런 거니까.

(약을 내밀며) 애들 영양젠데 일단 먹여봐.

기수: 괜찮겠죠?

약사: 애들도 사람이야! 잠자리 바뀌고, 같이 사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요한: (약병들을 뒤적이다 그 중에 하나를 꺼내 보이며) 삼촌, 나 이거 하나 가져도 돼?

기수와 이약사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는 요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약사.

31. 종대 옥탑 방.

살림살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방 안.

방 안 여기저기 밀리터리 사진 자료들이 붙어있다.

머리를 바짝 맞대고 있는 종대와 범상.

종대의 보물 상자를 주시하고 있다.

종대가 보물 상자를 열자마자 그 안에 든 물건을 낚아채는 범상.

범상에게 물건을 뺏기 위해 달려드는 종대.

범상: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는 척 하다가 다시금 가지고 도망치려 하는 범상.

범상에게 달려들더니 목을 조르는 종대.

범상: (목이 졸린 상태로 영화 <친구> 흉내를 내며) 친구야, 고만해라, 많이 목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 보이며) 자, 자, 가져가.

그제야 범상 손에 든 목걸이를 받아드는 종대.

목걸이에는 실탄 총알이 달려있다.

범상: 그게 그렇게 좋아?

종대: 응.

범상: 나보다?

종대: 그래.

범상: 나, 같게.

종대: 왜 그래, 농담이야.

범상: 아까는 십 오년 우리 우정이 끝나는 줄 알았어.

종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범상: (실탄 총알을 보며) 그거 가지고 뭐하게? 그거 맞으면 죽어?

종대: 총! 총이 필요해. 가짜 총 말고, 실탄 나가는 진짜 총.
총만 있으면 돼.

범상: 뭐가 되는데?

종대: 뭐든 돼.

범상: 뭐든?

종대: 뭐든!

cut to.

옥탑방 창가에 나란히 기대 앉아있는 종대와 범상.

범상 손엔 적외선 쌍안경이 들어 있다.

종대: 옛날 소련에서 실전에 사용되던 장비야. 어때?

범상: 나쁘지 않은데.

종대: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며) 가시거리가 100미터가 넘어.
북서쪽으로 30도만 틀어봐 봐.

쌍안경 방향을 트는 범상.

종대: 아니, 북서쪽 말이야.

다시금 방향을 트는 범상. 아파트 단지 베란다 창문에 쌍안경이 멈춘다.

종대: 한 층 한 층 살펴봐봐, 스펙터클 무비가 펼쳐지지 않냐?

어둠에 잠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한 층 한 층 천천히 훑는 범상.

갑자기 움직임이 멈춘 채, 한 곳을 계속 응시한다.

범상 옆에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종대.

범상: (불쑥 쌍안경에서 눈을 떼더니 종대에게) 변태 같은 자식.

종대: (아파트를 가리키며) 변태는 재들이야!

범상: (갑자기 씩 웃으며) 넌 사람 흥분시키는 재주가 있어.

종대: 흥분시키는 재주라...그 말 멋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종대.

범상: 뭐하는데?

종대: 멋진 말은 더 잘 까먹어, 저장이 최고야, 뭐든 저장해야 돼.

범상: 쫓쫓...뇌가 작으니까 여러모로 고생한다.

종대의 핸드폰을 낚아채는 범상.

종대: 뭐야, 안 내놔?

범상: (핸드폰 메시지들을 살펴보며) 네 뇌 속에 뭐가 있나 좀 보자.

종대: 죽는다, 너! 빨리 안 가져오지.

범상: 완전 허접 그 자체잖아. 이런 거 저장해두는 이유 세 가지만 말해봐?

그 순간 옥탑방 계단을 누군가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종대: (순간적으로 동작이 멈춰지며) 엄마다!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는 종대와 범상.

얼른 불을 켜고,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종대엄마.

범상: (어쩔 줄 몰라 하며 종대에게) 나, 갈게.

종대: 어...응...

종대母: (범상을 무시한 채 종대에게) 집에 사람들 데려 오지 말랬지?

종대: 뭐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지금 갈 거야.

범상: 네, 지금 갈려고요.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려는 범상을 붙들어 세우는 종대엄마.

핸드백에서 향수병 같은 것을 꺼내더니 그 안의 내용물을 범상에게 뿌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더니 창가 쪽 벽에 붙이는 종대엄마.
부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중얼 주문을 읽는다.

종대母: 뭐해, 같이 빌지 않고!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서 엄마를 따라 하기 시작하는 종대. 엉겁결에 따라하는 범상.

32. 옥탑 방 앞.

출입문 앞에서 종대를 기다리고 있는 범상.
갑자기 문이 열리면 입 안 가득 김밥을 넣은 종대가 밖으로 나온다.
뒤따라 나오는 종대 엄마의 손에는 김밥이 들어 있다.

종대母: (종대에게 애써 먹이려 하며) 하나만, 하나만 더!
종대: (제대로 발음도 못 내며) 돼..됐다니까...
종대母: (갑자기 목소리에 힘을 주며)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할 수 없다는 듯 김밥을 받아먹는 종대. 범상, 넋을 잃고 본다.

33. 옥탑 방 계단.

옥탑방 철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는 종대와 범상.

종대: (범상이 무언가 말하려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범상: (무언가 말하려다 멈칫한다.)

철 계단을 발로 마구 구르는 종대. 심한 쇳소리가 주위에 퍼진다.

범상: (종대 등을 토닥여주며) 어려운 일 일수록 엄마랑 상의해.

종대: 마더픽킹이다, 씨발!

범상: 그래도 너 네 엄마는 한결같은 게 매력이야.

어쩐, 초딩 때나 지금이나 대하시는 게 똑같으시냐?

종대: 지금 그거 욕이지?

범상: 위로하는 거야, 진심으로.

종대: 진심으로?

범상: 있는 힘껏!

종대: (금세 얼굴이 풀리며) 나쁜 새끼, 넌 좃나 못된 게 매력이야.

범상: 고마워, 친구.

34. 드럼 교습소.

씬1에서 나온 학생1,2를 앉혀 놓고 레슨을 하는 교습소 사부.
기수, 교습소 안 조그만 사무실을 정리하며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사부가 레슨 하는 모습을 본다.

사부: (세트 드럼에 앉은 채 자신의 자세를 보여주며) 일단 뒷태가 고와야 돼.
(드럼을 살살 치며) 그 담엔 각이 잘 살아야 하고,
(스틱을 휘리릭 돌려 보이며) 그리고, 마무리! 오케이?

순간 탄성과 함께 나란히 박수를 짹짹 치는 학생1,2.

사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누가 박수 치랬어?

갑자기 긴장하며 박수를 멈추는 학생1,2.

사부: 박수를 앉아서 치냐?

그제야 알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학생1,2.

사부: (흐뭇해하며) 가서 배운 거 연습들 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부.

사부: (사무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 바보들은 왜 받은 거야?

기수: 삼 개월 치 레슨비를 한꺼번에 냈어요.

사부: 그렇다고 받으면 어떡해? 사람 힘들게!

... 한 명 더 있다던데 갠 안 오는 거야?

기수: 온다고 했는데...

사부: 개도 삼 개월 치 먼저 내냐?... 왜 안 오나 이따 전화해봐.

기수: 네.

사부: (칭소하는 기수를 보며) 대충 해. 어차피 더러워질 거.

기수: 대충하면 대충한다고 뭐라 그러실 거잖아요.

사부: 내가 언제?

기수: 제가 사부님 모신지 몇 년째예요.

사부: 그런가,...근데 우린 왜 이렇게 안 친하냐?

기수: ??

사부: 너 식구 하나 늘었다며?

기수: ...

사부: 근데 왜 말을 안 해. 세션자리 하나 나왔더라, 가서 테스트 한번 받아봐.

(자리에서 일어나다 창문을 통해 스틱을 가지고 칼싸움하는 학생1,2를 보고)

아이, 근데 저 자식들이! (학생1,2를 향해 큰소리로) 야, 니들 뭐하는데!

사무실 밖으로 뛰어 나가는 사부.

기수, 사부를 보고 미소 짓는다.

35. 기수 원룸.

눈감은 채 누워있는 요한. 그 옆에 모로 누워있는 기수.

비 오는 소리만이 창문 너머로 들려온다.

요한이 잠들었는지 눈치만 살피는 기수.

슬며시 일어나서 형광등을 끄고 나가려 한다.

요한: 불 끄지 마!

기수: 안 잤어?

요한: 나 잠들어도 불 끄면 안 돼, 삼촌.

기수: 왜?

요한: 무섭단 말이야.

기수: 안 꿀 테니까 눈 감아. (시계를 보며 혼잣말로)

근데 이 자식은 왜 안 오는 거야?

요한: 누구?

기수: 눈이나 감으셔!

요한, 마지못해 눈을 감는다.

다시금 요한 옆에 눕는 기수.

요한: (책상 옆에 나와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삼촌, 의자 좀 짹 밀어 넣어줘.

기수: 왜?

요한: 내가 잠들면 귀신이 앉아서 쳐다본단 말이야.

기수: (기가 막히다.) 누가 그런 소리하디?

요한: 우리 엄마가.

기수: (의자를 책상에 짹 밀어 넣으며) ...귀신같은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요한: ...

36. 동네 거리.

빗줄기를 뚫고 정신없이 달리는 기수.

우산을 쓰고 달려가지만, 이미 옷이 빗물에 흠뻑 젖어있다.

달리는 기수 앞을 가로막는 동네의 명물, 악수아저씨.

우산을 들고 있는 모양새가 약간 이상하다.

악수아저씨: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
기수: 있다가, 아저씨. 나 바빠.
악수아저씨: (아기처럼 칭얼대며) 악수해줘!

할 수 없이 악수를 해주는 기수.
기수 손을 잡자 연신 흔들며 놓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속이 바짝바짝 타는 기수.

37. 대리운전 사무실.

인력사무소와 흡사한 사무실 풍경.
비를 홀딱 맞고 헐레벌떡 사무실에 들어서서 기수.

사장: 웬일이냐, 네가 시간을 다 늦고?
기수: 몰라.
사장: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래가지고, 몰디브 가겠어?
기수: 왜 그래, 또! 수건이나 있으면 하나 줘봐!

수건을 기수에게 건네주는 사장.
건네받은 수건으로 낡은 소파에 앉아 물기를 닦는 기수.

사장: (조심스럽게 기수 옆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보인다.)
기수: 뭐야?
사장: 짝퉁 비아그라... 아무한테나 팔지 말고, 적당히 기분 좋게 취한 손님들한테 보여 봐.
의외로 잘 팔린다, 꽤 짹짹해.
기수: 형이나 하슈!
사장: 새끼, 텅기기는! 누가 너보고 나쁜 짓하래? 그냥 부업하라는 거 아니야.
기수: 아휴, 안한다니까!
사장: 안하면 그만이지, 왜 코는 별령거려!

피식 웃는 기수. 그때 비를 잔뜩 맞은 채 사무실에 들어서서 종대.

사장: (종대를 보고는 기수에게) 너 아직도 재탕 다니냐?
기수: (종대에게) 넌 또 웬일이야? 집으로 오라니까 오지도 않고!
종대: (기수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하며) 형, 잠깐만 컴 온 베이비(come on baby)
하면 안 될까?

한숨을 내쉬며 종대를 따라 나가는 기수.

38. 대리운전 사무실 입구.

사무실 건물 입구에 서서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

종대: 형 빠졌구나? 알았어. 지금 바로 가서 요한이 불게.

기수: 갈 필요 없어. 재워놓고 나왔으니까.

종대: 진짜 빠졌네, 우리 형님!

기수: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종대: 앞으로 잘 할게, 형! 화 풀어?

기수: 밥은 먹었어?

종대: 밥은 됐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 형!

기수: (실실 웃으며) 안 중요해 보이는데?

종대: 웃지 말구,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

기수: 뭔데?

종대: 물건이 들어왔데.

기수: ??

종대: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해보이며) 빵! 이거 말이야.

내가 봤는데 정말 죽여.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죽여.

기수: 그래봐야 가짜 총이잖아, 애들도 아니고, 그런 장난감을 왜 사?

종대: 형한테만 얘기하는데, 가짜 아니야. 진짜야.

기수: 장난칠래?

종대: (그 말에 한숨을 푹 쉬며) 정말 그거 안사면 나 죽을 거 같아.

헤헤 농담이고, 형, 나 진짜 형 믿거든, 형도 나 믿잖아...

기수: 안 믿는데.

종대: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 주라.

기수: 너 네 엄마는?

종대: 에이 쟤장, 툴툴툴, 거기서 우리 엄마가 왜 나와, 마더 백킹이다!

그러지 말고, 형. 빌려주라.

기수에게 엉겨 붙는 종대.

기수: 나 너 싫거든, 너도 나 싫지?

종대: 아니, 좋아하는데.

기수, 종대의 볼을 손으로 슬슬 만진다.

기수: 이래도?

종대: (고개를 끄덕)

기수: (종대 볼을 손으로 툭툭 때리며) 이래도?

종대: (또 다시 고개를 끄덕)

기수: (손가락으로 종대 콧볼을 툭툭 치며) 이래도?

종대: (잔뜩 콧소리 섞인 말투로) 형, 너무 좋아, 계속 해줘.

기수: 으이그, 자식아...

39. 기수 원룸 앞 복도.

캔맥주를 마시며 기수 원룸 건물에 들어서는 종대.

노래를 흥얼거리며 꽤 술을 마신 듯 약간 비틀비틀 걸어 들어온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종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란다.

현관 문 앞에 서있는 요한. 허공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서있다.

종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암마?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물기로 축축한 현관바닥을 보고 다시금 놀라는 종대.

요한의 바지를 만져본다. 반응이 없는 요한. 축축하게 젖어있는 요한의 바지.

40. 기수 원룸.

요한의 바지를 벗기는 종대. 요한을 조심스럽게 안아서 화장실로 데려간다.

종대, 슬기운 때문에 걷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41. 원룸 화장실.

아주 비좁은 원룸 화장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종대의 모습이 보인다.

화장실 한 편에 가만히 서있는 요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시는 종대.

뜨겁지는 않은 지 수건을 자신의 몸에 대본다.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요한의 몸을 닦아준다.

종대: (요한의 고추를 보고는 혼자 중얼대듯) 이렇게 멀쩡한 녀석이 왜 이렇게 해매고 다녀? (요한을 보며 장난기 가득 실어서) 고추를 떼어 버릴까보다!

42. 기수 원룸.

요한에게 옷을 입혀주는 종대. 멍하니 종대가 하는 대로 반응 없이 서있는 요한.

종대: (약간 혀가 꼬여서) 너 엄마 보고 싶어 그러지?

너 네 엄마도 참, 마더백킹이다....

요한을 조심스럽게 자리에 눕히는 종대.

그 옆에 요한을 보며 모로 눕는다.

눈을 뜬 채 허공을 보며 죽은 듯이 누워있는 요한.

종대: (혼잣말로) 삼촌이 문 잠가놓고 가서 화난거야? 문 앞에 서있게.
(요한 머리카락을 만지며) 형도 예전에 그런 적 많아.

종대의 음성이 보이스 오버로 깔리고, 아이에게 상냥하게 손을 흔들며
출근하는 종대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화사한 웃차림의 종대 엄마.

종대 v.o.: 형네 엄마도 항상 문을 잠그고 다녔어. 일하러 갈 때 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출입문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는 종대 엄마.
혼자 바둑알과 성냥개비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
어둑한 실내 빛이 아이의 얼굴에 닿자, 아이가 요한임을 알 수 있다.

종대 v.o.: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셨어.
... 그리고, 정해진 것들을 주셨지.

홀로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꺼내는 요한. 음식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팩 용기에 담겨있다.
뚜껑들을 하나씩 여는 요한.

종대 v.o.: 어느 날,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누군가 집을 찾아왔어.

화면 밖에서 누군가 출입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 뚜껑을 열다가 소리에 놀라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드는 요한.
마찬가지로 소리에 놀라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현재의 종대.
바로 이어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요한.
엄마가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 요한. 출입문 앞에 멈춰 선다.
잔뜩 긴장한 얼굴의 요한. 자신의 바지를 움켜잡는다.
미세하게 떨리는 요한의 얇은 두 다리. 서서히 열리는 문.
자신도 모르게 바지 사이로 조금씩 오줌을 지린다.
어둔 실루엣 속에 커다란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짧은 침묵동안 마주보고 서있는 요한과 남자.
요한에게 마치 거인 같아 보이는 남자.

남자: 네가 종대냐?

요한, 입을 벌려서 <네>하고 대답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요한 곁에 누워있는 현재의 종대가 <네>하고 짧게 대답한다.
천천히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가 뒤늦게 깨닫고 허겁지겁 신발을 벗는다.

다시금 실내를 찬찬히 훑어보는 남자.

자신의 젖은 바지 한쪽을 꼭 움켜잡고 호기심과 불안감에 남자를 바라보는 요한.

남자: 생각보단 집이 크구나!

요한: ...

계속해서 집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남자.

종대 v.o.: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진 그 집을 팔고 다시 사라졌지.

커튼이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거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종대엄마.

종대엄마가 입고 있는 하얀 블라우스가 주위 어둠을 밝힌다.

손에 든 와인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통째 마시는 종대엄마.

종대 v.o.: 그날 이후로 엄마는 늘 빨간 술을 마셨지.

제대로 들이키지 못한 붉은색 와인이 입가를 타고 흘러

하얀 웃옷을 붉게 적신다.

종대 v.o.: ... 엄마는 바보였어.

다시금 현재의 종대.

종대 v.o.: (옆에 누워있는 요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어쩔 너 네 엄마도 그런 걸까?

어느새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는 요한.

물끄러미 요한을 바라보다 요한 볼에 입 맞추는 종대.

43. 종로 뒷골목.

작은 공업사가 밀집해 있는 종로 뒷골목.

골목길을 서성이는 종대가 보인다.

그때, 종대에게 접근하는 젊은 남자.

젊은 남자를 따라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종대.

종대를 잠깐 골목에 세워두는 젊은 남자.

남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 모자 쓴 대머리 아저씨가

말 걸어오면 따라 가.

종대를 남겨두고 사라지는 남자.
잠시 뒤 모자 쓴 대머리 아저씨가 나타난다.
종대에게 아는 체를 하는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를 따라 걷는 종대.

아저씨: (대뜸) 누굴 죽이려고 그래?
종대: 네?
아저씨: 총 가지고 멧돼지 잡을 건 아니잖아?
종대: ...
아저씨: 젊은 사람이 참으면서 살아야지.
종대: ...
아저씨: (종대 눈치를 보며) 우린 기술 하나 끝내줘, 못 만드는 게 없어.
수출까지 한다니까!

종대를 데리고 건물 앞으로 향하는 대머리 아저씨.

44. 건물 앞.

밝고 허름한 건물 앞.

아저씨: 여기 지하가 공장이야. 물건 가지고 나올 테니까,
아까 젊은 친구 오면 돈 쥐서 보내. 실탄은 몇 개 필요해?
종대: ...(한참 생각하더니) 열 개쯤.
아저씨: 다섯 개만 가지고 가. 젊을 땐 무조건 참는 게 좋아. 참고 또 참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대머리 아저씨.
그때, 썸 43의 젊은 남자가 종대에게 걸어온다.

남자: 물건은 받았어?
종대: 가지러 가셨어요.
남자: 돈은?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종대.

남자: (대충 봉투 안을 살피더니) 연발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해.

고개를 끄덕이는 종대.
골목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

cut to.

건물 앞에 여전히 서있는 종대.
대머리 아저씨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상한 생각에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종대.
지하 출입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다.
당황하는 종대.
그때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다.
트럭에서 내린 젊은 일꾼들이 지하로 내려가더니, 박스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다.
이상한 생각에 건물 지하로 뛰어 내려가는 종대.

일꾼1: 뭐야, 학생!

제지하는 일꾼들을 제치고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종대.

45. 건물 지하.

차곡차곡 쌓아놓은 박스들로 가득 찬 지하실.
종대, 당황해서 지하실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머리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풀썩 바닥에 주저앉는 종대.
몸을 일으켜 박스를 뜯어본다.
박스 안은 싸구려 옷들로 가득하다.
그때, 종대에게 달려오는 일꾼들.

종대: (일꾼들에게) 대머리 자식 어디 있어?

일꾼1: 학생 미쳤어?

종대: 대머리 자식 어디 있냐고?

일꾼2: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어따 대고 반말 이야.

남의 창고에 와서 자꾸 행패 부릴래!

종대: 니들도 한패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일꾼2에게 달려드는 종대.

46. 건물 앞.

박스를 가득 싣고, 고무 끈을 이용해 박스를 트럭에 고정시키는 일꾼들.
건물 입구에 종대가 쭈그리고 앉아있다.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하는 일꾼들.

47. 녹음실.

녹음부스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기수.

폭발할 듯 힘이 넘친다.

부스 밖에서 듣고 있던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연주를 끝내고 긴장된 표정으로 부스 밖을 쳐다보는 기수.

남자1: (마이크에 대고) 수고했어요. 사부님 잘 계시죠?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기수.

남자1: 담 주에 이틀 정도 시간 내 줄 수 있어요?

환하게 웃으며 드럼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기수.

48. 동네 거리.

우산을 받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악수아저씨.

비 맞으며 걸어오는 종대와 마주친다.

악수아저씨: (먼저 종대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

종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

다시금 쫓아가 악수를 청하는 악수아저씨.

종대, 악수 대신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장난감권총을 아저씨에게 쥐어준다.

49. 아파트 단지 주변

비를 훌쩍 맞은 채 아파트 단지 주변을 어슬렁대며 걷는 종대.

그때,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어놓은 미시주부가 종대를 발견하고 부른다.

미시: (환하게 웃으며) 세차총각! 세차총각!

미시주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종대.

종대에게 달려오는 미시주부.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달려오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미시: 널 아침에 내부 청소 좀 해 줄래, 경비실에 키 맡겨 놓을 테니까.

말없이 미시주부를 바라보는 종대.

약간 이상한 기운을 느낀 미시주부.

미시: 알았어, 돈 줄게, 돈 주면 되잖아. 얼마야?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혼잣말로) 지난번엔 서비스라더니...

말없이 미시주부에게 다가가는 종대.
종대의 다가옴에 약간 긴장하는 미시주부.

미시: 왜 그래? 총각!

뒤로 주춤하다 굽 높은 하이힐 때문에 자동차에 기대게 된 미시.

종대: (미시에게 바짝 다가가더니) 언니!
미시: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는 종대의 목소리에 놀란다.)
종대: 나 세차 때려 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는데,..
(몸을 숙여 하이힐이 신겨진 미시발목에 손을 가져가 대며) 발목 내놓고
다니지 마요. 누구 흥분시키려고 그래.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미시주부.
발목에서 위쪽으로 미시주부의 다리를 더듬는 종대의 손.
당황한 미시주부의 얼굴 사이로 약간의 호기심이 내비쳐진다.
심하게 떨리는 종대의 손끝.
종대의 행동을 지켜보는 미시주부.
종대의 손이 치마끝자락에서 머뭇대자, 종대의 손을 부여잡는 미시의 손.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는 두 사람.
종대의 손을 자신의 치마 안쪽으로 천천히 이끄는 미시주부.
미시주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종대.

cut to.

갑자기 아파트 화단에서 커다란 돌맹이를 하나 줍는 종대.
단지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백미러를 차례차례 돌로 깨부순다.
파편처럼 떨어져나가는 백미러 조각들.
경비실에서 수위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뛰어 나온다.
경비를 향해 돌을 던지고 도망치는 종대.

50. 동네 놀이터.

비 내리는 놀이터 미끄럼틀 꼭대기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종대.
빗물과 술이 섞여서 입 속에 들어간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기수를 발견한 종대.

종대: 형!

기수,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못 듣는다.

종대: (악을 쓰듯) 형!

그제야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기수.

종대: 여기야, 여기, 멍청아!

기수: (그제야 종대를 발견하고) 거기서 뭐해? 비 오는데.

종대: 좋아 보인다, 형!

기수: 뭐하냐니까?

종대: 좋아 보인다고!

기수: (실실 웃으며) 뭐해? 비 맞고.

종대: 왜 웃지? 내가 웃겨?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기수: 왜 그래? 총은 샀어?

종대가 있는 미끄럼틀 쪽으로 걸어가는 기수.

종대: 오지 마, 거기 있어.

기수: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 있구나?

종대: 왜? 무슨 일 좀 만들어 줄까?

종대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 미끄럼틀을 올라가려고 하는 기수.

종대: (술병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며) 오지 말라니까!

술병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사방에 울린다.

종대: (기수가 서있는 미끄럼틀 아래를 가리키며)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는 게 더 잘 맞아, 형한테.... 참고로 얘기하는데, 나 이제 세차 안 해.
차들이 내가 싫대.

우산을 들고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기수.

미끄럼틀 계단을 향해 올라오는 기수를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발길질 하는 종대.

종대: 뭐가 좋아 쪼개고 다녀, 어? 난 죽겠는데!

병신이 지껄이니까 우습냐? 어? 말해봐, 말해 보라고?

종대의 주먹질을 피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는 기수.

종대 제 품에 지쳐 미끄럼틀 꼭대기에 주저앉는다.

기수, 말없이 종대 옆에 서서 우산대가 다 망가진 우산을 받쳐준다.
종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기수를 밀어 내더니,
고래고래 악을 쓰며 자신의 머리를 미끄럼틀 쇠덩이에 연신 박아댄다.
금세 이마에 검붉은 피가 흐르는 종대.
깜짝 놀라서 종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껴안는 기수.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종대.

종대: (흐느끼며) 형, 무서워! 무섭다고...

51. 병원 응급실.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병상에 잠들어 있는 종대.
옆에서 병상을 지키고 있는 기수.
그때, 범상과 함께 병실에 들어오는 종대엄마.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수.
누워있는 종대에게 혈레벌떡 다가가는 종대 엄마.
핸드백에서 향수병 같은 것을 꺼내서 종대 몸 곳곳에 뿌리며 주문을 외기 시작한다.

기수: (범상을 잡아끌어 귀퉁이에 몰아넣고) 야, 내가 돈 좀 구해오랬지,
언제 어머니 데려 오랬어?
범상: 종대엄마가 돈 낼 거잖아.
기수: (어이 없으며) 입 닥쳐, 이 바보야, 불쌍한 종대자식! 너 같은 걸 친구라고...

그때 종대 불을 때리며 종대를 깨우는 종대엄마.
놀라서 종대엄마에게 다가가는 기수.

기수: (종대엄마를 말리며) 뭐하세요?
종대엄마: 집에 가야지.
기수: 종대, 지금 아파요.
종대엄마: 아프니까, 집에 가야지. 잡귀들이 가득한데, 여기서 뭘 한다고.
(계속 종대를 깨우는 종대엄마) 종대야, 일어나.
기수: 그만하세요, 어머니!

무언가 주문을 외며, 향수병에 든 물을 기수에게 뿌리는 종대엄마.
기수, 어쩔 줄 몰라 한다.

종대엄마: (갑자기 주문을 멈추며) 너, 우리 종대랑 놀지 말랬지, 어?
기수: ...
종대엄마: 어릴 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얘기를 얼마나 망쳐 놓으려고 그래!
종대 잡아가면 천주님이 가만있으실 거 같아?
범상: (분위기가 파악 못하며 기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천주님이 누구야?

종대母: 종대 죽으면 내가 책임 질 거야? 어?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기수: ...

종대母: 종대가 어떤 아들인지 알아? (갑자기 복받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며)
어떤 아들인데, 종대가...(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종대
손목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을 뺀 뒤 링겔병을 병실 벽에 집어던진다.
링겔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린다.

종대: (악을 쓰며) 그만하라고,..나 멀쩡해,..안 죽으면 될 거 아냐!

종대 목소리에 묻혀서 정적에 쌓인 병실.
종대 엄마의 흐느낌만이 들린다.

cut to.

모두가 잠든 심야의 병실. 실내등만이 켜져 있어 아늑한 느낌이다.
침대에 누운 채 잠들어 있는 종대.
침대 옆에 앉아 물끄러미 종대를 보고 있는 기수.
종대 머리맡에 붙여있는 부적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부적에 손을 가져가는 기수.
기수가 부적에 손을 대는 순간 화면 밖에서 들리는 종대 엄마의 목소리.

종대母: 더러워, 만지지마.

화면 밖에 서있는 종대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기수.

종대母: 네 잘못이 아니다, 전부다 내 탓이지.

카메라 기수 얼굴에서 천천히 화면 밖 종대 엄마에게 이동하면 십년 전 과거 속
젊은 종대엄마가 서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녀.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가득하다.

종대母: 일어나, 괜찮으니까.

화면밖에 있는 기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미는 종대엄마.
그 손길을 따라가면 침대 옆에 무릎 꿇은 채 앉아있는 십년 전 기수가 있다.
침대에는 어린 종대가 잠들어 있다. 두려움에 떨리는 기수의 눈망울.
몸을 숙여 기수를 안아주는 종대엄마. 종대엄마에게 안긴 기수.
종대엄마 뒤편에 서있는 김사장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cut to.

화면이 바뀌면 어린 기수의 플래쉬 백.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중인 돌산공터.
돌산 커다란 바위틈에 몸을 묻고,
작은 동굴처럼 주위로부터 독립된 바위틈 공간을 훑쳐보는 기수.
순간적으로 숨이 멎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사장과 그 앞에서 젊은 종대엄마가
입고 있던 하얀 블라우스를 풀어헤치는 모습이 기수 눈에 비친다.
한손에 와인 병을 든 종대엄마가 김사장을 향해 생긋생긋 웃는다.
나머지 한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헤치는 종대엄마.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서 단추를 풀 때마다 봉긋한 가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난다.
웃을 듯 말듯 한 미소를 지으며 종대엄마를 향해 걸어가는 김사장.
그 광경을 지켜보는 기수의 눈빛이 심하게 떨린다.
이미 취기가 올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종대엄마.
주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치마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린다.
하얀 속살과 함께 드러나는 매혹적인 몸의 곡선.
골반까지 내려간 치마 때문에 허리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종대엄마 앞에 바짝 다가가는 김사장.
김사장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맨 허리선을 매만지게 하는 종대엄마.

종대모: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김사장: 왜 나지? 왜 나를 골랐어요?
종대모: (깔깔깔 웃으며) 그냥...
김사장: 대답해야 진도가 나갈 텐데.
종대모: ... 당신 앞이라면... 괜찮을 거 같았어요.
김사장: 왜?
종대모: 당신은 강하잖아요.
김사장: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며) 돌아봐.

김사장 눈치를 보며, 천천히 뒤로 도는 종대엄마.

김사장: (거칠게 뒤통에서 종대엄마를 안으며) 뭘 원해?
종대모: 없어요,...그냥 만져줘요... 예쁘다고만 해줘요...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바짝 몸을 밀착시킨 두 사람.
낮은 신음소리가 공간을 메운다.

김사장: 어떻게 해줄까? 뭘 원해?
종대모: (고개를 저으며) 그냥 예쁘다고만 해줘요...
예뻐서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해줘요.

김사장: 그냥 하고 싶다고 말해. 참을 수 없다고,
그런다고 욕할 남편도 없잖아?

연신 고개를 가로젓는 종대엄마. 거칠게 종대엄마의 몸을 매만지는 김사장.
몸이 바짝 굳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는 기수.

김사장: 내가 어떻게 보여? 말해 봐?

종대엄마: 몰라요.

김사장: 모른다고? 강해 보인다며?

종대엄마: 그냥 예쁘다고 해줘요. 그거면 돼요.

김사장: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 누군지 알려줘?

종대엄마: (고개를 가로 저으며) 그냥 예쁘다고 해줘요.

김사장: 원하는 걸 말해 봐, 솔직하게!

종대엄마: 그냥 사랑해줘요.

종대엄마의 손을 붙들고, 자신의 사타구니로 끌고 가는 김사장.
자신의 사타구니를 어루만지게 한다.

김사장: 사랑해달라고? 이게 나야, 어때? 실망이야?

실망이지, 이 더러운 년아!

종대엄마: ...

김사장: 내가 별 짓을 다해도 내 몸은 꿈쩍도 안 해. 알겠어?

종대엄마: ...

김사장: 지랄 같은 인생이야, 그렇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쏟아내는 종대엄마.

그 광경을 지켜보다 두려움에 심하게 몸을 떠는 기수.

한쪽 손에 끼고 있던 야구글러브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그때, 기수를 부르는 종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허겁지겁 종대를 향해 달려가는 기수.

종대와 마주치자 종대를 잡아끌고 간다.

종대: (기수가 뛰어 온 쪽을 보며) 뭐야? 형.

기수: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빨리.

종대: 공은?

기수: 없어, 새로 사지, 뭐.

종대: 무슨 소리야, 사인볼을 어디서 새로 사?

기수가 달려온 쪽을 향해 가는 종대.

종대를 붙잡아 세우는 기수.

기수: 그냥 가자니까.

종대: 뭘 그냥 가? 그 공이 어떤 공인데.

기수: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나중에 찾아.

종대: 나중에 언제? 왜 나중에 찾아? 지금 찾지.

기수: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종대를 붙든다.) 이 새끼가 진짜, 형 말 안 들어?

종대: (기수를 밀치며) 안 들어, 지금 찾을 거야.

걸어가는 종대에게 달려가 힘으로 붙들어 세우는 기수.

기수를 밀치려 애쓰는 종대. 순식간에 엉겨 붙는 두 사람.

엉겨 붙은 채 주먹이 오가다 종대에게 발길질을 하는 기수.

갑자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꼬꾸라지는 종대.

놀라서 종대에게 달려가는 기수.

52. 기수 원룸 앞.

잔뜩 술에 취해 현관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기수.

머릿속에 엉켜있는 과거의 어느 시간 속을 더듬는 듯 보인다.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기수.

53. 기수 원룸.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실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는 요한의 모습이 보인다.

기수: (잠든 요한을 발로 살살치며) 야! 김요한! 임마, 일어나 봐.

잠에 취해서 험사리 눈이 떠지지 않는 요한.

기수: (고함치듯 큰소리로) 삼촌이 하라는 거 했어?

기수의 목소리에 놀라 책상위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요한.

요한이 내민 종이를 보고 있는 기수. 술에 취해 몸이 삐딱하다.

기수: 삼촌이 공부 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한: ...

기수: (고함치듯)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한: (놀라서) 바보.

기수: 그래, 바보. 너 바보 되고 싶어?

요한: ...

기수: (요한이 내민 종이를 다시 요한에게 주며 벌러덩 방바닥에 눕는다.)

읽으세요, 왕자님.

요한: (떠듬떠듬) 부모님께...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칭찬해 주세요...엄마,.. 아빠...사랑해요....

기수: (혀가 꼬부라져서) 누가 보고 싶다고?

요한: ...엄마,...아빠.

기수: 그러면, 누가 온 데?

요한: ...

기수: 너 네 엄마, 아빠는 쓰레기야, 알아?

요한: ...

기수: 아니다, 종류는 다르다, 너 네 엄마는 창녀고, 너 네 아빠는 병신꼬다 쓰레기야!

요한: ...

기수: (술에 취해 혼자 중얼대듯) 너, 창녀가 뭘 줄 알아? 창..너..

술 팔고,..그러는 거...

말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요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흘쩍인다.

기수, 깜짝 놀라서 요한을 본다.

기수: 바보같이 왜 울어, 남자자식이!

안 그쳐!

하지만, 한번 터진 요한의 울음은 그칠 줄 모른다.

엉엉엉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요한.

기수: 이 자식이 진짜! (빗자루를 주워들고 요한의 엉덩이를 때리려 한다.)

요한: (잔뜩 겁먹은 채 손을 빌며 떠듬떠듬 흘쩍이며)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기수,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린다.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연신 작은 손을 움직여 잘못했다고 비는 요한.

기수, 가슴이 먹먹해져 무릎을 꿇고 요한을 안는다.

기수: (요한을 안은 채) ... 미안,.. 삼촌이 미안해.

기수에게 꼭 안긴 채 울음을 참으려 흘쩍이는 요한.

54. 원룸 화장실.

치약을 짜서 요한에게 내미는 기수.

요한: 같이 닦자. 삼촌!

할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칫솔을 챙겨드는 기수.

cut to.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이를 닦고 있는 요한과 기수.
바가지에 물을 떠서 양치물을 행구는 기수.

요한: (손을 내밀며) 나도!

기수: 바가지 주면 훌륭한 소년이 될 거예요?

요한: (치약 거품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오며) 삼촌, 빨리!

기수: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요한: (입 주위에 잔뜩 치약 거품을 묻힌 채 대충 대답한다) 네!

그제야 요한에게 바가지를 내미는 기수. 바가지 물로 입 안을 행구는 요한.

기수: 삼촌한테도 한마디 해야지.

요한: (입 안을 행구며 성의 없게) 훌륭한 소년이 될 거예요?

기수: ...

요한: (입 안을 행구다가 약간 이상함을 느껴 기수를 본다)

기수: (그제야 요한을 향해 빙긋 웃으며 짧게 힘주어 대답한다) 네!

55. 거리.

도시의 밤거리를 걷는 종대와 범상.

범상이 앞장서서 가고, 종대가 뒤따라간다.

종대 한발 앞서 뛰어가서 범상의 길을 가로막는다.

종대: 어디 가는데?

범상: (종대 이마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떼어주며) 병원.

다시금 앞장서 가는 범상. 범상 옆에 따라 붙는 종대.

종대: 무슨 병원이야? 지금 막 퇴원한 사람한테.

범상: 사양할 거 없어, 우정으로 받아들이면 돼.

다시금 가던 길을 앞장서가는 범상.

영문을 몰라 하며 뒤따라가는 종대.

56. 안마시술소 앞.

<남성휴게소>와 <스포츠 마사지>란 글자가 나란히 보이는
건물 앞에 멈춰선 종대와 범상.

종대: 여기 기름 바르고, 누워 있는데 아니야?
범상: 병원이라니까, 네 진짜 상처를 치료하러 온 거야.
종대: 쓸데없는 데 헛돈 쓰는 거 아니지?
범상: 나중에 또 오자고 보채지 말고, 일단 따라와 봐.

앞장서서 들어가는 범상.

57. 안마시술소 실내.

꼭두기 머리를 한 남자가 인터넷 포카를 하고 있다가, 종대와 범상을 맞는다.
남자가 챙겨주는 얇은 가운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향하는 두 사람.

58. 탈의실 안.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는 종대와 범상.
옷을 갈아입는 범상의 손길이 달달달 떨어진다.

종대: 너, 왜 떠나?
범상: (정색을 하며) 떠는 게 아니라, 흥분한 거야, 임마!
종대: 참고로 얘기하는데, 기름 바르고 누워 있는 데면 너 죽는다.
범상: 아이 새끼, 내가 인터넷으로 다 알아 봤다니까.
종대: 전에 왔었다며?
범상: (아차!)
종대: 나, 갈래.
범상: 가긴 어딜 가, 돈까지 다 냈는데.
 밖에 꼭두기들 안 보여?
종대: 뭐하는 텐데?
범상: 그냥, 여자들한테 서비스 받는 데야.
종대: 됐어, 나, 간다.

가운을 벗어던지고, 나가려는 종대.

범상: (종대 뒤통수에 대고) 너, 고자 아니라며?
종대: (움찔한다.)...
범상: 고자냐? 아니면 아닌 증거 세 가지만 대화?
종대: (갑자기 돌아서서) 야, <고자>란 말 내 앞에서 꺼내지 말랬지,
 한번만 더 꺼냈다면 넌 완전 고자 될 줄 알아!
범상: ...

주섬주섬 가운을 다시금 챙겨 입는 종대.

가운 속에 모형 총을 숨겨 넣는다.

범상: (종대가 총을 숨기는 걸 보고) 그건 뭐하게?

종대: 관심 꺼라, 내 분신이니까!

59. 안마시술소 복도.

가운으로 갈아입고 안마시술소 복도를 걷는 종대와 범상.

깎두기 머리를 한 남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밀실로 들어가는 종대와 범상.

범상, 종대에게 <행운의 키스> 흉내를 해 보인다.

가운데 손가락을 범상에게 치켜세우는 종대.

60. 안마시술소 밀실.

문을 열고 밀실에 들어가는 범상.

부드러운 실내등이 켜진 실내에는 마사지용 침대와 작은 욕실이 한쪽에 보인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마사지용 침대에 올라가보는 범상.

눅지 않고, 다리를 모은 채 앉는다. 얼굴엔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유니폼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사지결1이 들어온다.

마사지결1: 오빠, 너무 어둡지 않아?

범상: 조금...요.

익숙한 숨씨로 실내등 단계를 높이는 마사지결1.

조금 환해진 실내.

마사지결1: (범상 얼굴을 보더니) 오빠가 아니고, 자기네.

범상: ...

마사지결1: (엇겨주춤한 범상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자기야, 편하게 있어.

마사지결1의 손끝에 금세 반응하는 범상.

마사지결1: 애인모드로 해줄까, 누나모드로 해줄까?

범상: ...

마사지결1: 응?

범상: 그냥...누...나..모드로...

마사지결1: 먼저 깨끗이 씻을까?

범상: ...

마사지결1: 자기 반응이 왜 그래? (얼굴색이 바뀌며) 젊은 애로 바꿔줘?

범상: 그게 아니고,...

잠시 침묵 속에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범상과 마사지걸1.

마사지걸1: 자기 담배 피?

범상: (허둥대며) 담배, 탈의실 바지에 있는데...

밀실 한 귀퉁이에 숨겨둔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는 마사지걸1.

마사지걸1: (범상을 보며) 한대만 필게?

범상: (고개만 끄덕)

담배를 맛있게 피는 마사지걸1.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순간 놀라서 일어나는 범상.

마사지걸1: 그냥 있어, 비명 지르는 것도 생리현상이야.

범상: (벌떡 일어나서 나가며) 아니, 내 친구가...

마사지걸1: (범상을 잡으며) 괜찮다니까.

마사지걸1을 뿌리치고, 밀실 밖으로 나가는 범상.

61. 복도.

복도에 서서 종대가 있는 밀실 문을 열어보는 범상.

밀실 안에는 마사지걸2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덜 떨고 있다.

종대는 벽을 향한 뒷모습 인 채 한 손에 든 총으로 마사지걸2를 겨누고 있다.

범상: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종대야!

그제야 뒤를 돌아보는 종대. 벽에다 대고 오줌을 싸고 있다.

종대: (반쯤 눈이 풀린 상태로) 누구야, 뺨상이구나!

범상: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뭐하는 거야?

종대: (계속해서 오줌을 갈기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난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봐.

(떨고 있는 마사지걸2를 보며) 그치, 언니야?

마사지걸2: (덜덜 떨며) 그냥 서비스 해 드리려고...기분 좋으시라고...

밀실 바닥이 점점 오줌물로 흥건하게 젖는다.

범상: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야, 그만 가자.

종대: 뺨상아, 너무 원더풀하다. 지금 네 목소리.

범상: (다시금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가.자.구, 새.끼.야.

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순간, 밀실에 들이닥친 깡두기들의 발차기에 나동그래 떨어지는 범상.

깡두기들에게 총을 겨누는 종대.

깜짝 놀라서 뒤로 주춤하는 깡두기들.

범상: (바닥에 쓰러진 채 깡두기들에게) 저거, 가짜예요.

그제야 종대에게 달려드는 깡두기들.

완전 개 싸움판이 되는 밀실 안.

62. 안마 사무실.

실내등 정도만 켜져 있어 제법 어두운 사무실 실내.

무릎 꿇은 채 앉아있는 종대와 범상.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최부장.

종대의 가짜 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부장: 오줌 싼 놈이 누구야?

범상, 짹짹 종대를 가리키고, 종대 손을 살며시 든다.

그때, 울리는 최부장의 핸드폰. 핸드폰을 받는 최부장.

폰팅 안내를 알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최부장의 핸드폰 너머 사무실까지 크게 울려 퍼진다.

최부장: (핸드폰을 끊으며) 요즘은 총이 한 열개씩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울리는 최부장의 핸드폰.

최부장: 여보세요,..지금 우리 회의 중이거든...안부전화지?

나 잘 살고 있고, 너 잘 살아야 돼...행복하구.

전화를 끊는 최부장.

최부장: 사장님 오시면 무조건 빌어, 잘못했다고. 학생이라고 그러고.

범상: (분위기 파악 못하며) 저희 학생 아닌데요.

범상 옆구리를 툭 치는 종대.

한심하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는 최부장. 담배를 피워 문다.

최부장: (종대를 보며) 종교 있어?

종대: ...

최부장: 교회 나가냐고?

종대: 안 나가는데요.

최부장: 이번 주부터 나가.

종대: 네?...(분위기에 눌려) 네.

최부장: (종대를 보며) 집안에 혹시 공무원 있어?

종대: 없는데요.

최부장: 집안은 좋네. 내 머리 크냐, 작냐?

종대: ...큵니다.

최부장: 새끼, 거짓말은 안하겠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사장.

최부장 정중하게 인사하며 김사장을 맞이한다.

덩달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바짝 굽히며 인사를 하는 종대와 범상.

김사장: (어둠 속에서 종대임을 확인하고는) 어! 종대 아냐!

종대, 김사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인다.

김사장: (최부장을 보며) 잠깐 나가있어.

범상을 데리고 나가는 최부장.

김사장: (소파를 가리키며) 이리와 앉아, 편하게!

종대: (그대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채) 괜찮습니다.

김사장: 뭐, 죄졌어? 그리고 있게. 내가 더 불편해.

멈칫멈칫하며 소파에 가 앉는 종대.

김사장: 우리 가게 언제?

종대: ...좋습니다.

김사장: 뭐가?

종대: 그냥...전부 다...

김사장: 주변에 몇 개 더 있어, 내가 관리하는 게.

종대: ...

김사장: (살짝 미소 지으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종대: (고개를 못 든다.)

김사장: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참 세월이... 내가 너 요만 할 때부터 봤는데,
기억나? 골목에서 나랑 야구 하던 거,

통장 아줌마 공으로 맞춰서 글러브 뺏기고 그랬잖아.

종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김사장: 그 노인네 성질 하나 죽여줬는데, 아직 살아있나 몰라?

종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김사장: 그래,... 그렇군...

종대: (난데없이)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요.

김사장: 나처럼?

종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사장: 내가 어떤데?

종대: 남자답고, 멋있으시고, 나이스하시고...

김사장: (결결 웃으며) 정말 나처럼 살고 싶어?

종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며 임과장이 나자빠지며 들어온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양형사.

매서운 눈매에 깊게 패인 얼굴 주름살이 도드라져 보인다.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김사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임과장.

출입문을 세차게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양형사.

문이 망가질 정도로 세차게 반복한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종대를 제지하는 김사장.

종대를 제지하느라 함께 포개진 종대와 김사장의 손.

행동을 멈추고 김사장을 노려보는 양형사.

양형사: 김사장, 내가 당신 위야, 아래야? 어?

김사장: ...

양형사: (코함을 치며) 위야, 아래야? 말해봐.

일그러진 종대의 얼굴. 짧은 침묵 속에 부르르 떨리는 종대의 손.

종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김사장 손에 힘이 들어간다.

양형사: (양복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집어던지며) 내가 당신 위야, 알겠어?

... 그러니까 담부턴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 (임과장을 발로 툭툭 차며)

인간들 가려서 받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양형사.

깊은 적막이 사무실에 흐른다.

cut to.

어두운 사무실 실내.

안마시술소 곳곳에 설치된 CCTV화면을 보고 있는 김사장.

손님들의 드나듦과 각각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풍경들이 모니터 화면에 비친다.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최부장. 짙은 음영이 얼굴에 깔려있다.

김사장: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지랄 같은 인생이야...

최부장: 양형사, 손 좀 볼까요?

김사장: ...

최부장: 지가 언제부터 세금 받아먹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경찰 행사를 해... 이 기회에 정리 하시죠?

김사장: 나보다 위에 있다잖아, 그냥 뒤.

최부장: 그래도...

김사장: 그 인간만큼 썩은 경찰 있어? 괜히 그 인간 잘라냈다가,
멀쩡한 놈 와서 우리 물 흐려놓으면 어찌려고?

최부장: 아까 그 애는...

김사장: 누구? 종대?

최부장: 네.

김사장: 멀쩡한 놈 아니니까, 잘 데리고 있어,

최부장: 네.

김사장: (혼잣말처럼) 완전 또라이야...

최부장: ...

63. 시내도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기수.
뒷좌석엔 별로 취한 것 같지 않은 양복차림의 중년신사가 앉아있다.
도로 앞쪽에선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갑자기 길게 늘어진 자동차 행렬 속에서 자동차 한 대가 삐죽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내달린다.
뒤이어 격렬한 경보음을 내며 경찰차가 뒤쫓는다.

손님: (차창 밖으로 내달리는 자동차를 보며) 어쭙, 귀여운데.

얼마 못 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멈춰서는 자동차.
운전석에서 남자 한명이 뛰쳐나와 내달리기 시작한다.
뛰는 모습이 한 눈에도 만취 상태로 보이는 남자.
도망가다 가로수를 붙들고 혼자서 실랑이한다.
남자를 쫓아가다 그 광경을 어이 없어하며 바라보는 경찰들.

손님: 술 처먹었으면 대리를 불러야 할 거 아니야...
(룸미러로 기수를 보며) 안 그래요, 아저씨?
기수: 네? (마지못해) 아, 네...

그때, 울리는 기수의 핸드폰. 손님을 의식하며 조용하게 전화를 받는 기수.

기수: (종대임을 알고) 왜?...그래, 알았어, 축하해...나 지금 일하거든,...있다 전화할게.

서둘러 전화를 끊는 기수.

손님: 축하할 일이 있나 봐요?

기수: 아, 예...동생이 취직됐다고 해서...

손님: 야! 대단하시네. 요즘 같은 때에. 축하드려요.

기수: (마지못해) 아, 예...고맙습니다.

손님: 그나저나 나라경제가 좀 잘 풀려야 할 텐데...그죠?

기수: (역시나 마지못해) 아, 네...

64. 외곽도로.

음주 단속하는 데를 지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손님: 아저씨, 요 앞에 세워 주실래요?

기수: 네?

손님: 여기부터는 단속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기수: 술 드셨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손님: 괜찮으니까 세워 주세요.

차를 세우는 기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기수에게 내민다.

손님: 전단지 보니까, 킬로로 계산한다던데, (천 원짜리 몇 장을 내밀며)
이 정도면 되겠죠? 한 번 세어 보세요.

기수: (어이없어하며) 아니, 장거리 뽐 때는 그런데...지금은...

단속하는 데만 살짝 지나쳐 왔는데...

손님: 어! 난 그렇게 알고 아저씨 부른 건데...전단지 요금이 잘못된 거예요?

기수: 아니요, 맞는데요...(잠시 멈칫하다 선선히 돈을 받으며)...가세요.

운전석에 오르는 손님. 차를 몰고 사라진다.

사라지는 자동차를 힘없이 쳐다보는 기수.

cut to.

도로를 따라 걸어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기수

새벽녘 을씨년스런 공기가 차갑기만 하다.

기수: 아니, 그럼 나보고 어찌라고, 전단지에 적힌 데로 돈 내겠다는데,
원칙적으로 그 사람 말이 맞잖아,..뭐?...그러게 전단지를 제대로 찍던가,...
그래서,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몰라, 알았어, 맘대로 해!

전화를 푼 기수. 다시금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cut to.

도로 한 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기수.

잠시 뒤 한적한 도로 한가운데를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기수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인다.

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낡아 보이는 오토바이를 종대가 몰고 온다.

뒷좌석엔 요한이 거의 매달린 채 타고 있다.

반가워서 운전대를 놓고 두 손을 다 흔드는 종대. 순간적으로 놀라는 기수.

기수 앞에 멈춰서는 종대의 오토바이.

기수: (요한을 보며) 애는 왜 데려왔어?

종대: 형이 옆에서 잘 보라며!

기수: (오토바이 앞 범퍼를 발로 툭 차며) 오토바이가 뭐냐? 이게!

종대: 쯔만 기다려 봐, 할리 데이비슨으로 바뀔 테니까.

기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타며) 다 필요 없고, 이거타고 집까지만 무사히 갔으면
 좋겠다. 그치? 요한아!

요한: 삼촌, 참고로 말하는데, 오다가 두 번 섰어.

종대: (큰 소리로) 야! 말하지 말랬지!

기수: (종대에게) 근데, 어제, 애 말투가 너를 닮아가는 거 같다. 불길한데!

심한 굉음과 연기를 내며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하는 오토바이.

65. 강변복로.

강변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종대의 오토바이.

심한 바람 때문에 오토바이에 탄 세 사람은 최대한 몸을 밀착하고 있다.

'죽이지 않냐' 는 표정으로 뒷좌석의 기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는 종대.

기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화답한다. 종대와 기수 사이에 꼭 끼어 있는 요한.

cut to.

화면이 바뀌면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요한이 사진 찍는 포즈를 하고

카메라를 쳐다본다. <찰각> 소리와 함께 종대가 핸드폰 디카를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핸드폰에 찍혀진 사진을 보고 요한에게 포즈를 다시금 주문하는 종대.

종대: 야, 요한! 눈을 좀 더 야려야지, (자신이 시범을 보이며) 봐봐, 형처럼.

눈가에 바짝 힘을 주어 요한을 노려보는 종대.

금세 종대 눈빛을 흥내 내는 요한.

종대: 그렇지.(요한에게 핸드폰을 들이대며) 그대로, 그대로 있어봐, 죽인다. 지금!

요한과 종대가 노는 사이 쭈그리고 앉아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는 기수.

기수: 위에서 자꾸 갑죽 델래?

종대: 다 됐어?

기수: (쭈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며 종대에게) 되긴 뭐가 돼?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어디서 이런 거지같은 걸 끌고 와서...

종대: ...

cut to.

자동차들이 뽕뽕 달리는 강변도로 모퉁이에 바짝 붙어 나란히 걸어가는 기수와 종대.

오토바이에 요한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기수.

그 뒤를 종대가 터덜터덜 따라 걸어간다.

새벽 시간에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도로변에 몸을 밀착시킨 채 나란히 걷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아까 화낸 게 미안했던지 종대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요한에게 말을 거는 기수.

기수: (종대 눈치를 살피며 요한에게) 오토바이 타니까 좋지?

요한: (기수 잠바를 입은 채로) 추워, 삼촌.

기수: (종대 눈치를 보며) 그래도 좋잖아. 공기도 좋고.

종대: (땀 지를 걸며) 오버 하지 마, 소풍 나온 거 아니니까!

요한: 근데, 여긴 왜 오토바이가 안 다녀?

기수: (이런!) ...

종대: 바보야, 원래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니깐 그러지.

요한: 그럼, 우린 다니면 안 돼?

종대: 그래, 바보야,

요한: 그래도 지금 다니고 있잖아?

종대: 안된다니까!

요한: 왜 안 되는데?

종대: (버럭 화를 내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가 다녀도 돼는 길은 없어, 알아?

투덜대며 기수를 앞질러서 걸어 나가는 종대.

풀이 죽은 요한. 앞서가는 종대를 한없이 바라보는 기수.

요한에게 화낸 게 미안한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씩씩대며 걸어가는 종대.

그때, 종대형! 하고 부르는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개를 돌리는 종대.

요한을 태운 오토바이를 끌고 자동차들이 뽕뽕 달리는 도로 한복판을 걸어가는 기수.

놀라는 종대.

종대: 미쳤어, 뭐하는 거야?

기수, 종대를 무시하고 계속 도로 한복판을 걸어간다.

종대, 차들을 피해 기수에게 달려간다.

종대: (기수를 붙잡으며) 왜 그래, 미쳤냐고?

(길모퉁이를 가리키며) 빨리 저쪽으로 가.

종대를 뿌리치고, 요한을 태운 오토바이를 끌고 도로 한가운데를 걷는 기수.

기수: (걸어가는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요한아,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야,
왜 못 가? 왜 못 가는 데?... 갈 수 있어.

종대: (기수에게 달려와 고래고래 목청을 높여) 죽고 싶어 환장 했어?

기수: (종대를 보며 담담하게) 걱정하지 마, 살기 위해 가는 길이니까.

종대: ...

묵묵히 요한을 태운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는 기수.

종대, 말없이 그 뒤를 따른다.

요한: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한강을 보며) 삼촌, 저거 바다야?

갑작스런 요한의 외침에 놀라 함께 강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기수와 종대.

cut to.

도로변에 한강을 보며 나란히 서 있는 기수와 종대.

종대: (뚫어지게 한강을 보며) 형, 여기 강이 있었어!

기수: 바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종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강을 향해 내보인다.

기수: 뭐해?

종대: 우리 엄마도 보여주려고.

한강을 향해 사진을 한참동안 내보이는 종대.

종대 손에 든 사진을 받아드는 기수.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되고 청초한 모습의 종대 엄마가
사진 속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다.

66. 기수 원룸.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기수와 요한.
쾌쾌한 담배연기가 가득한 실내 공기 때문에 기침을 해대는 요한.
방안에선 영수가 졸담배를 피며 인터넷 바둑을 두고 있다.
출입문을 활짝 여는 기수.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반가워서
'아빠' 하며 영수에게 달려가는 요한.
바둑에 정신이 팔려 형식적으로 요한을 반기는 영수.
착잡한 표정의 기수.

cut to.

나란히 누워있는 기수, 요한, 영수.
제법 깊이 잠들었는지 요한의 썩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기수: 내일 낮에 시간 있으면 요한이 데리고 가서 머리 좀 잘라.
영수: (땀 생각하다가) 응?
기수: 애 머리 좀 잘라주라고.
영수: 응, 그러지 뭐!
기수: 뭐 보고 있는 거야?
영수: 응,,그냥...천장.
기수: (영수가 보고 있는 천장을 보며) 천장? 천장은 왜?
영수: 꼭 바둑판같지 않냐?
기수: (어이없어하며) 형수는 찾아봤어.
영수: 응, 뭐...쫌...
기수: 찾긴 한 거야?
영수: 대전 유성 쪽에 있는 거 같던데. 다행히 술집은 아닌 거 같고.
기수: 그럼 가서 데려오던가 해야지. 주소는 알아?
영수: 알긴 아는 데,...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기수: 뭘 고민하는데?
영수: 뭐긴 뭐야 내 인생이지.
기수: (할 말을 잃은 표정이다.) ...

67. 안마시술소 밀실.

웨이터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종대.
안마시술소 밀실을 청소하고 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사지걸2. 이후 <정은>으로 표기.

정은: 오빠, 혹시 청소하다 반지 같은 거 못 봤어?

종대: 못 봤는데요.

정은: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같은데.

실내등을 전부 켜는 종대. 환하게 밝아진 실내.

그제야 종대얼굴을 제대로 보고 깜짝 놀라는 정은.

종대: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저 여기 취직했어요.

정은: (차마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종대: 근데 반지가 어떻게 생겼죠?

정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동그랴게.

종대: 아, 동그랴게!

열심히 밀실 이곳저곳을 뒤지는 종대. 바닥 곳곳을 살살이 훑는다.

약간 감동받은 정은.

정은: (작은 목소리로) 지난번 일 너무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반지 찾느라 정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종대.

정은: (혼잣말처럼) 더한 손님들 썰고 썰는데, 뭐.

종대: (정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갑자기 큰소리로) 찾았다.

(반지를 들어 보이며) 동그란 거, 이거 맞죠?

귀엽게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은.

68.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기계에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김사장.

기계음이 썰렁한 실내공기를 가르다.

김사장 등 뒤에서 들리는 종대엄마의 목소리.

종대母: (화면 밖에서) 김선우씨!

미동 없이 주차기계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김사장.

종대母: (화면 밖에서) 종대 놔줘요.

김사장: 제 발로 찾아 온 거야, 잡은 게 아니고.

종대母: 언제까지 그 애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나처럼 만들 거예요?

김사장: (목소리가 커지며) 넌 아직도 잃을 게 남았어.

종대母: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죠? 남편이 도박 빚 대신 당신에게 집을
넘겼을 때도 참았어요,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협박할 때도 참았고요, 하지만, 하지만, 종대 안돼요, 절대로 안돼요.
도대체 내가 잘못된 게 뭐죠?

김사장: (깔깔 웃으며) 태어난 거 자체가 잘못이지. 예쁜 만큼 더럽게 태어난 게 죄야.
(서늘한 눈빛으로 돌아보며) 너같이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로 회를 떠도 모자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달려드는 종대엄마.
한 손엔 칼이 들려있다. 김사장, 뒤에서 달려드는 종대엄마를 빠르게 몸을
움직여 피하더니, 칼 든 손을 비틀어 꺾는다. 칼을 떨어뜨리고 마는 종대엄마.
그 순간 천천히 주차기계 문이 열리고, 검은색 에쿠우스가 보인다.
자동차 본넷 위에 종대엄마를 쓰러뜨리는 김사장. 강하게 저항하는 종대엄마.
힘으로 종대엄마를 제압하는 김사장. 종대엄마의 치마를 들치려 한다.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종대엄마.
저항하는 종대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김사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종대엄마.

김사장: 종대가 병신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나랑 놀아나서 그렇게 된 거야, 알아?

저항하던 몸짓에 힘이 빠지는 종대엄마.

김사장: 종대는 핑계지? 응? 말해봐, 사내 품이 그리워서 왔다고!
말해도 돼, 어차피 넌 더러운 년이니까!
하나님이 너 같이 더러운 것들을 위해 남자를 만든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넌 고통 받아야 돼. 알겠어?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종대엄마.
눈을 감은 채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종대엄마.
종대엄마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을 푸는 김사장.

김사장: 벌써 잊었나? 내가 고자라는 거.
(낄낄 웃으며) 나처럼 살고 싶대, 종대 그 녀석이.
하하하...

주차기계 안에 울려 퍼지는 김사장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
폭발하듯 터지는 김사장의 웃음소리와 주문을 외우는 종대엄마의 목소리가
좁은 주차 기계 안에 메아리쳐진다.

69. 종대 옥탑방.

해질녘 붉은 햇살이 깃든 옥탑방.

종대가 가방에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다.

뉘를 잃고 종대를 바라보고 있는 종대엄마.

종대가 짐을 싸서 일어나려하자 종대에게 매달리는 종대엄마.

종대母: 견뎌야 해, 지금 가면 지는 거야.

종대: 지긴 누구한테 진다는 거야?

종대母: 종대야, 믿음을 가져. 엄마를 믿어 봐.

종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 같아.

종대母: 김사장 악마야, 엄마를 망친 것도 그 사람이야.

종대: ...

종대엄마를 밀치고 문밖으로 나가는 종대.

70. 기수 원룸.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드럼스틱을 챙기는 기수.

무언가 잔뜩 신이 난 얼굴이다.

텔레비전을 보다 신기한 듯 기수를 쳐다보는 요한.

요한: 삼촌 어디가?

기수: 돈 벌러, 삼촌 돈 벌면 뭐 사줄까?

요한: 삼촌, 오늘 여자친구 만나지?

기수: 무슨 말이야?

요한: 텔레비전 보면 여자친구 만날 때 남자들이 꼭 삼촌 같아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는 기수.

동화책을 요한에게 건네주며,

기수: 그럼만 보지 말고, 글씨도 읽어. 알았지?

입이 삐죽 나오는 요한.

71. 원룸 입구.

발걸음이 유쾌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기수.

건물 입구에 서서 향수병에 담긴 물을 곳곳에 뿌리고 있는 종대 엄마를 보고 놀란다.

기수: (종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종대엄마, 기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주문을 중얼거리며 열심히 손으로 빈다.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서 있는 기수.

종대엄마: (의식을 마쳤는지 동작을 멈추고) 네 녀석을 위해 기도한 거야!

기수: ...

종대엄마: 부탁이 있다. 우리 종대 좀 잡아줘라. 짐 싸서 나갔어.
취직을 했다는 데 내가 보기엔 아나올시다야.

기수: ...

종대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마, 너 생각 없는 놈 인거 다 아니까.

기수: ...

종대엄마: (간절한 눈빛으로) 종대, 지켜 줄 거지?

기수: ...

72. 거리.

도심의 밤거리를 걷는 기수.

거리에서 안마시술소 명함을 돌리고 있는 종대를 발견한다.

기수를 보자마자, 골목으로 도망치는 종대.

종대를 쫓아가는 기수.

73. 유흥가 골목길.

종대를 뒤쫓아 달려가는 기수.

유흥업소가 밀집된 골목길을 내달리는 종대.

마치 미로처럼 연결된 환락가 골목길을 내달리는 두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 같다.

막다른 골목길에 멈춰선 기수.

숨을 고르며 종대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내 낙담하며 뒤돌아서 간다.

그때, 갑자기 골목길 한 귀퉁이에서 튀어 나오는 종대.

종대: (큰소리로) 멍청아! 쫓아왔으면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종대에게 다가가는 기수.

종대가 뿌리던 명함 한 장을 뺏어서 본다.

기수: (명함을 보며) 전실장? 헤이, 전실장!

종대: 건들지 마.

기수: 앞으로 어쩔 건데?

종대: 건들지 말라고! 걸어 다니는 폭탄이니까.
 기수: 폭탄?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종대: ...
 기수: 터지면?
 종대: 다 죽어.
 기수: (종대 사타구니를 장난스럽게 만지며) 나머지 한쪽도 터뜨려 줄까?
 종대: 하지 마, 장난 아니야.
 기수: (종대 머리를 쥐어박으며) 까불지 마, 이 바보야!
 마사지 빼기가 뭐 대단하다고. 내일 당장 그만 뒤.
 종대: (화를 버럭 내며) 그만 두면? 그만 두면!
 다시 가서 아줌마들 냄새나는 차나 닦으라고!
 기수: 세차가 어때서? 일한만큼 돈 받는데, 그게 어때서?
 종대: 일한만큼만 받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래봐야 내 인생의 절반은 쓰레기통 속에 있어, 알아?
 기수: 너 같은 자식은 말이 필요 없어, (한 손으로 종대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며)
 그냥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종대: 놔, 이거, 못 놔.

갑자기 격렬하게 저항하는 종대. 종대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기수.
 종대, 손으로 맞은 뺨을 감싸 쥐며 몸을 숙인다.

기수: 아프냐? 아프냐고? 아프면 내 말 들어, 알겠어?

손으로 얼굴을 움켜진 채, 천천히 허리를 펴는 종대.

종대: 형은 항상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왜, 붙알 한쪽 가지고는 부족해? 어?
 (악을 쓰며) 부족하냐고!

기수: ...

몸이 굳은 듯 서있는 기수.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골목길 끝으로 걸어가는 종대.

종대: (기수 쪽을 향해 돌아서서)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 빼끼 아니야,
 실장이라고, 실장! 실장 위엔 부장, 부장 위엔 사장, 알겠어?

기수: ...

74. 안마시술소 밀실.

안마대 위에 누워있는 종대.

밀실 문을 열고 정은이 들어온다.

벌떡 일어나는 종대.

종대: 뭐야?

정은: 최부장이 들어가래서.

종대: 됐어, 가봐.

정은: 그냥 잠깐만 있을게, 지금 나가면 어차피 다른 방에 가야 돼서...

종대: ...

가만히 한쪽에 서있는 정은. 굽 높은 하이힐 때문에 발목을 빼격거린다.

종대: (정은의 굽 높은 하이힐을 보더니) 신발 벗어봐?

정은: 싫어.

종대: 벗어봐, 괜찮으니까.

정은: 키 작다고 놀리려고 그러지.

종대: 아니야.

하이힐을 벗는 정은.

하이힐을 벗자, 미소녀만큼 키가 작은 정은.

종대: 앞으로는 신고 다니지 마. 불편하게 그런 걸 왜 신어.

정은: 이거 안 신으면 손님들이 애 같다고 싫어한단 말이야.

너도 하이힐 신은 여자가 좋다면?

종대: ...그건... 미안해.

고개를 푹 숙이는 종대.

종대에게 다가가는 정은.

종대의 볼에 살짝 입 맞춘다.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는 종대.

싱긋 웃어 보이는 정은.

cut to.

나란히 안마대 위에 앉아있는 종대와 정은.

정은이 <섬집아이>라는 동요를 흥얼거린다.

노래에 맞춰 다리를 흔드는 두 사람.

업따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려주는 자장 노래에 딸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마치 바닷가 바윗돌에 앉아있는 것 같은 두 사람.

어디선가 파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75. 김사장 사무실.

성경책을 보고 있는 김사장.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기수.
기수를 제지하다 함께 끌려 들어온 깁두기남.
깁두기남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는 김사장.

기수: 종대, 내놔요.
김사장: 여전하구나? 버릇없는 건.
기수: 종대, 착한 애예요.
김사장: 착하니까,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기수: 종대 다치면 당신은 죽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사장.
기수에게 다가가 천천히 얼굴을 들이민다.

김사장: 난 너같이 착한 척 하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김사장, 굳게 쥐어진 기수의 주먹을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다물어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한다.
주먹 쥔 손가락에 잔뜩 힘을 주는 기수.
하지만, 김사장의 완력을 당해내지 못한다.

김사장: (기수의 손가락을 펴며) 종댄 이미 다쳤어, 네가 다치게 했잖아, 기억 안 나?

활짝 퍼진 기수의 손바닥을 잡고 악수하는 시늉을 하는 김사장.

76. 드림 교습소.

어두운 교습소 실내. 암흑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 느껴지는 드림 소리.
짧은 연주는 끝이 난다. 그때 사무실 쪽에서 실내등이 켜진다.

사부: (사무실 소파에 잠들어 있다 깨어나서) 뭐야? 모닝콜이야?
기수: (미안한 마음에 놀라서)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죄송해요...

담배를 피워 물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사부.

사부: (교습소 실내등을 켜며) 드륵, 드륵, 안 좋아, 넌 항상 플랩이 약하더라.
성격이야, 기분 문제야?

기수: 둘 다 문제죠, 뭐.

사부: 아니야, 기분 문제야, 드림은 성격을 안 타, 기분을 타지.

성격 나빠서 드림 못 치는 애들 못 봤거든.

기수: ...

사부: 녹음실엔 왜 안 갔어? 세션 일 얻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기수: ...죄송해요.

사부: 살다보면 리듬이 헛갈릴 때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두드리면 되지.

기수: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사부: 드림으로도 안 될 일이면 큰일인데.

기수: ...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부: 지금도 충분히 좋아.

기수: (고개를 가로저으며)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엉망이 되요.

사부: 괜찮아, 엉망이 되면 좀 어때,

그때마다 다시 와서 스틱 잡으면 되지.

기수: (고개를 들어 사부를 바라본다.)

사부: (기수의 눈을 바라보며) 현실이 꿈을 이긴 적은 없어. 용기를 가져.

기수: ...

사부: 식전에 떠들었더니 출출 하네. 가서 술 좀 사와라.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수.

잠바를 챙겨 입더니 교습소 밖으로 뛰어나간다.

사부: (기수 뒷모습에 대고) 야마, 돈 있어? 돈 갖고 가야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로) 자식, 돈 쓸 줄 안다니까.

77. 안마시술소 카운터

카운터에 앉아 컴퓨터 포카를 하고 있는 최부장.

거나하게 술이 취한 양형사와 임과장이 큰소리로 떠들며 들어온다.

잔뜩 비굴하게 양형사에게 아부하는 임과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깎듯하게 맞는 최부장.

최부장: 오셨습니까, 형님!

양형사: (주먹으로 장난스럽게 최부장을 툭툭 치며) 형님은 무슨, 우리가 깡패냐?

임과장: (살살 대며) 아이고, 최부장. 양형사님 스타일 좀 맞춰드려라.

최부장: (양형사에게 깎듯이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형님!

양형사: 또! 그나저나 피곤해 죽겠어. 힘 좋은 애들 좀 있어?

최부장: (자리에 놓인 수화기를 들며) 들어가 기다리세요,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양형사: 오래가는 건 됐고, 힘 좋은 애로!

서로 낄낄대며 탈의실로 향하는 양형사와 임과장.

78. 안마시술소 탈의실.

탈의실을 정리하고 있는 종대.

양형사와 임과장이 큰소리로 떠들며 들어온다.

두 사람의 얼굴을 슬쩍 보고는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종대.

임과장: (옷을 갈아입으며) 에이, 양형사님은 해 보셨을 거 같은데?

양형사: 안 해 봤다니까, 그런다.

임과장: (애교를 떨며) 진짜~로~

양형사: 아이, 이 친구가.

임과장: 그럼, 오늘 실컷 해보세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탈의실을 정리하는 종대의 인상이 찌푸려진다.

서로 낄낄대며 옷을 벗는 두 사람.

순간적으로 양형사가 벗어놓은 총집에 시선이 가는 종대.

양형사: 자기는 많이 해본 거 같은데?

임과장: 저희 마누라가 겁이 없거든요,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데모하다가도 열 뺨치면, 벌러덩 길에 들어 눕고 그랬는데,
요즘도 열 뺨치면, 아무데서나 들어 눕고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양형사: 제수씨 진짜 죽이는데!

마시지 복으로 갈아입고 탈의실을 나가는 두 사람.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마대자루를 분해하는 종대.

마대자루에서 철사조각을 뽑아낸다.

철사조각을 이용해서 양형사의 사물함을 여는 종대.

옷가지들 속에서 총집을 찾아낸다.

총집에서 총을 꺼내는 종대. 얼굴이 잔뜩 긴장해 있다.

탄창이 비어있는 빈총임을 확인하는 종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벗는다.

실탄이 달려있는 목걸이에서 실탄을 떼어내는 종대.

총에 실탄을 장전한다.

허공을 향해 총을 겨눠보는 종대.

79. 안마시술소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사장.

최부장: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양형사 왔습니다.

김사장: 혼자?

최부장: 임과장이 그새 붙었던데요. 양형사 앞에서 살살 거리는 게 못 봐 주셨던데요.

김사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애들은?

최부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은과 아가씨1.

새벽시간이라 다들 지쳐 보인다.

아가씨1: (최부장에게) 어느 방 이에요?

최부장: 플라워(flower)랑 피스(peace).

아가씨1: (정은에게) 너 어디 들어갈래?

정은: 언니는?

아가씨1: 내가 먼저 물었잖아?

정은: 몰라, 짜증나, 아무데나 들어가지, 뭐.

김사장: 이것들이 어디서 큰소리야, 큰소리가, 어!

아가씨1,2: ...

최부장: (정은을 가리키며) 네가 <피스> 들어가, 아주 중요한 손님이야. 알아서 잘해.

정은: ...

더 이상 말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걸어가는 아가씨들.

김사장: (최부장에게) 봉투는 준비했어?

최부장: 이번엔 그냥 넘어 가죠? 돈 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사장: 기집과 돈은 같이 가는 거야. 준비 시켜.

최부장: 네.

80. 안마시술소 복도.

밀실을 청소하고 나오던 종대와 마주친 정은.

종대를 못 본 척 지나가려한다.

종대, 좁은 복도 통로에서 몸을 웅크려 길을 터준다.

종대를 지나치려는 순간 멈춰서는 정은.

정은: (종대 눈치를 살피며) 나 반지 또 잃어버렸어.

종대: ...

정은: 또 찾아줄 거지?

종대: ...

정은: 응?

종대: (멈춰 서서 한동안 정은을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응.

종대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는 정은.
마치 오케이 싸인 같다.
종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정은. 따라 웃는 종대.

81. 밀실.

손님이 있다가 나간 빈 밀실을 청소하는 종대.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점점 크게 들리는 양형사의 성난 목소리.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종대.
이어서 들리는 양형사의 욕설과 구타당하는 정은의 비명소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방으로 달려가는 종대.

82. 밀실 <피스>.

<피스>라고 방 이름이 적혀있는 밀실 문을 열어젖히는 종대.
벽에 기대어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정은.
유니폼은 다 찢기고, 그새 부어 오른 얼굴은 처참한 모습이다.
그 옆에는 벽에 한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양형사가 보인다.
갑작스런 종대의 등장에 놀라는 양형사.
양형사를 향해 달려드는 종대.
잔뜩 술에 취한 양형사는 종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양형사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종대.
비명을 지르는 정은.

종대: 변태 새끼야, 아프냐? (계속 발길질 하며) 아프냐고 묻잖아!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악을 쓰며) 개 같은 변태새끼들...
다 죽어, 다 죽으라고...

밀실 안을 메아리치는 종대의 절규.

83. 안마시술소 사무실.

사무실의 CCTV화면을 보고 있는 김사장.
화면 속 종대의 행동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수화기를 든다.

84. 밀실 <피스>

쓰러져 있는 정은을 부축하는 종대.
그때, 밀실에 달려 들어오는 최부장.

종대에게 다가오는 최부장.

최부장: (종대의 가슴을 툭툭 치며 다가온다) 너, 미쳤어? 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 아저씨야!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은에게 걸려 넘어지는 최부장.
갑자기 욕을 하며 일어나더니 정은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종대. 최부장을 밀친다.

종대의 행동에 놀란 최부장.

종대를 벽 한쪽 코너로 몰아간다. 잔뜩 위축된 종대.

종대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종대 얼굴을 툭툭치는 최부장.

최부장: (비아냥거리며) 너, 저 년 좋아하냐? 응? 말해봐?

종대: (방금 전과는 다르게 사뭇 위축되어 있다.)

점점 세계 종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최부장. 그냥 맞고만 있는 종대.

최부장: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야, 어?
말하기 싫어, 어? 말하긴 싫으냐고!

종대: ...

종대의 코에서 흘러내리는 코피.

최부장: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피 보면 끝날 줄 알았지, 어?

종대: ...

최부장: 어찌나, 이제 시작이라서.

종대: (부들부들 떤다.)

최부장: (더 세계 종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며) 너 멀쩡한 놈 아닌 거 다 알아,
그럴수록 착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종대: (얼굴이 붉게 물든다)

최부장: 정신 나간 너 네 엄마는 어찌려고 그래?

종대: (표정이 일그러진다.)

최부장: (비열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하자보수라도 해줄까? 어? 재건축이라도 해줘?
(소리 높여) 말해봐, 병신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최부장을 세계 밀치는 종대.

바닥에 '턱' 하고 쓰러지는 최부장.

최부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 속에서 나이프를 꺼낸다.) 너 같은 새끼는 아주 골로 보내야 돼.

두려움에 휩싸인 종대.
바지 속에서 총을 꺼내, 최부장을 향해 겨눈다.

최부장: 그거 가짜 줄 다 알거든. 자꾸 까블래?

종대를 향해 달려드는 최부장.
순간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종대.
총알이 발사돼서 최부장의 허벅지를 맞힌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최부장.
비명을 지르며 밀실 밖으로 뛰어 나가는 정은.

85. 안마시술소 입구.

조심스럽게 안마시술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정은과 부딪힌다.
머리와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핏자국이 몸 곳곳에 보이는 정은.
부딪힌 게 아픈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밖으로 도망친다.
정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기수.
카운터 한쪽 편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다.
쓰레기통에서 손님들이 버린 작은 드링크 병을 찾아낸 기수.
드링크 병을 쥔 손끝이 심하게 떨린다.

86. 밀실 〈피스〉

밀실로 달려온 김사장.
김사장에게 총을 겨누는 종대.

김사장: (차분하게) 너 바보구나,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건 나이스 한 게 아니야.

종대에게 다가가는 김사장.
종대, 총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준다.

김사장: 내 피 색깔이 어떨 거 같아? 궁금하면 방아쇠를 당겨봐.

조금 더 종대에게 다가가는 김사장.
종대, 총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온다.

김사장: (조용하게) 종대야.

종대이름을 부르는 순간, 종대 손에 있는 총을 힘으로 빼앗는 김사장.

총을 종대 머리에 겨누는 김사장.

김사장: 내 피 색깔은 너와 똑같아. 지금 확인해볼까? 어?

종대: 실컷 썩봐. 총알도 없는 빈총이니까.

방아쇠를 당겨보는 김사장. 역시 빈총이다.

총을 집어던지는 김사장.

종대 목을 손으로 조인다.

숨을 쉬지 못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종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김사장.

김사장 뒤편에는 기수가 서있다.

손에 쥔 작은 드링크 병으로 김사장의 머리를 후려친 기수.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김사장의 뒤통수를 몇 차례 더 가격한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김사장.

병조각을 쥐고 있는 기수의 손이 덜덜덜 떨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 기수.

병조각을 쥐고 있는 기수의 손에서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

놀라서 달려와 병조각을 뺏으려 하는 종대.

종대가 붙들자, 오히려 병조각을 쥐고 있는 기수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종대, 울음을 터뜨리며 기수 손에 쥐어진 병조각을 뺏기 위해 애쓴다.

종대: (울먹이며) 이 바보야, 놔, 놓으란 말이야.

병조각을 쉽사리 놓지 않는 기수.

기수의 손에서 흘러나온 핏물이 종대의 손을 물들인다.

종대: (악을 쓰며)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내가 잘못했어,... 형 죽으면 나도 죽어, 알아?

주먹을 쥐고 있던 기수의 손에 힘이 풀리며, 깨진 병조각이 바닥에 떨어진다.

피범벅이 된 기수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종대.

자신의 옷소매로 기수 손에 흐르는 피를 닦아준다.

기수, 힘없이 천장 불빛을 올려다본다.

87. 약국 안.

피를 많이 흘려 피범벅이 되어 있는 기수의 손을 이약사가

빠른 손놀림으로 치료하고 있다.

근심스런 얼굴로 옆에서 지켜보는 종대.

기수: (종대를 보며) 부탁이 있어.

종대: ...

기수: 들어 줄 거지?

종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한 손을 이용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기수.

기수: (지갑을 종대에게 건네며) 신분증 넣는데 봐봐. 종이가 하나 있을 거야.

지갑에서 종이쪽지를 꺼내 보는 종대.

기수: 요한이 엄마 있는 곳이야.

종대: ...

기수: 요한이, 엄마에게 좀 데려다 줘,
지갑에 있는 돈도 쓰고.

종대: 형은?

기수: ...

종대: 같이 가, 형.

기수: (고개를 천천히 가로 젓는다.)

그리고... 돌아오지 마, 이곳으로는.

종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형은 어찌고?

기수: 난 여기 있어야 돼.

종대: (울먹이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못가, 안가!

기수: 우리 둘 다 문제 생기면 요한인 어쩔 건데?

종대: 그럼, 형이 가, 내가 여기 남을 게.

물끄러미 종대를 바라보는 기수.

기수: (한 손으로 종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넌.. 내 유일한 꿈이야.

... 어디가든 꿈을 놓지 마...

종대: (눈물을 흘리며) 근데 형은 왜 나를 놓는 데?

기수: ... 나보다 널 더 좋아하니까.

종대: (흘러내린 눈물이 얼굴 가득하다.) 바보...

기수: ...

88. 동네 거리.

동네 거리를 홀로 걷어가는 기수.

새벽녘부터 나와 있는 악수아저씨가 보인다.

악수 아저씨에게 다가가는 기수.

악수아저씨: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 악수하자.

기수, 악수아저씨의 손을 잡는다.
기수가 악수를 해주자, 싱글싱글 웃는 악수아저씨.
함께 덩달아 웃는 기수.

기수: (붕대가 감긴 다른 한 손도 내밀며) 아저씨, 이쪽 손도.

기수가 내민 나머지 손도 냉큼 받아 쥐고 악수를 하는 악수 아저씨.
순간적으로 붕대가 감긴 손에 통증을 느껴 인상이 찌푸려진 기수.
이내 고통을 참으며 환하게 웃는다.
양손을 서로 쥐고 울동하듯 악수를 하는 두 사람.
기수, 눈가가 슬프다.

기수: 아저씨!

악수를 멈추는 기수. 악수가 계속 하고 싶어 손을 흔드는 악수아저씨.
기수, 살며시 미소 지어 보인다.

기수: 다음에...(아이를 달래듯 자상하게) 다음에 또 악수하자. 우리. 응?

그제야 악수를 멈추고 기수의 손을 놓아주는 악수 아저씨.
악수 아저씨를 남겨두고 거리를 걸어가는 기수.
기수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경찰서 불빛이 보인다.

89. 고속 터미널 버스 승차장.

고속 터미널 밖 버스 승차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종대와 요한.
빨대를 꽂아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 요한.

요한: 형,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로 만들어?

종대: 그래.

요한: 그럼, 딸기 우유는?

종대: 당연히 딸기지.

요한: 그럼, 흰 우유는?

종대: ... (피식 웃는다.)

요한: 어?

종대: 몰라.

요한: 치이. 삼촌은 알 텐데. 형!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지?

종대: 그래.

요한: 그냥 참고로 말하는 건데, 삼촌이 나 버리려는 건 아니지?

종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야?

요한: 같이 안 가잖아.

종대: 삼촌 일 끝나면 바로 따라 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요한: ...

종대: 진짜라니까! 삼촌이 너한테 보낸 문자 보여줄까?

요한: 응.

종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찾아 요한에게 보여준다.

종대: (핸드폰을 내밀며)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요한: 형이 읽어줘.

종대: 넌.. 내 유일한 꿈이야.

요한: (이해가 안 가는 듯) 뭐야, 그게?

종대, 말없이 요한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종대.

요한: 형, 나 화장실!

종대: 작은 거야?

요한: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

종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싸.

승차장 귀퉁이로 요한을 데리고 가는 종대.

바지 앞 쪽만 살짝 내놓고 오줌을 싸는 요한.

요한: 형, 오토바이 안타고 왜 버스 타고 가?

종대: 쉬나 하셔.

요한: 오줌이 안 나와.

종대: 눈감고 집중해봐.

요한: ...

종대: 눈 감으라니까!

요한: (겨우 눈 감는다.) 오줌 안 나오면 죽어?

종대: 안 죽어.

요한: 죽으면 좋을 텐데.

종대: (갑자기 놀라서) 무슨 소리야?

요한: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

종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요한: (다리를 슬슬 흔들며) 삼촌이 낳으면 되잖아, 결혼해서.

종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요한: (큰소리로) 오줌 나온다!

종대: 가만히 있으라니까!

요한: 형, 근데, 왜 눈감으면 까매?

종대: ...

두 사람의 대화와 함께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이어서 엔딩 크레딧과 함께 엔딩 음악이 흘러나온다.